《**김정일**동무가 조선혁명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였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여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조선혁명처럼 노래와 밀착된 혁명, 노래로 엮어진 혁명은 아마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김 일 성

《나는 선군정치와 함께 음악정치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노래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것은 노래속에 우리 당의 정치가 반영되여있고 노래가 사람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무기와 같기때문입니다.》

김 정 일

차 례

당을 칭송한 가요

전시가요

선군을 주제로 한 가요

가고싶어 가는 길

작사 리성남
작곡 김문혁

궁지를 가지고 밝고 따뜻하게(♩=70)

2. 가는 길 천만리 눈비내려도
가고싶어 가는 길 두렵지 않네
행복의 락원을 펼치여주는
당을 따라서 가는 길은
가고싶어서 가는 길
가고싶어 가고싶어 가는 길

3. 우리 당 따라서 끝까지 가리
가고싶어 가는 길 끝까지 가리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주는
당을 따라서 가는 길은
가고싶어서 가는 길
가고싶어 가고싶어 가는 길

고마워라 은혜로운 우리 당이여

2. 나의 행복 열매와 같이 대지우에 주렁지우고
나의 희망 노을과 같이 만리창공 나래펴주네
내 소원 꽃펴준 어머니는 세상에 하나
아 고마워라 은혜로운 우리 당이여

3. 마음속에 함께 있으며 나의 충성 꽃피워주고
밝은 미래 펼치여주며 나의 신념 불태워주네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는 세상에 하나
아 고마워라 은혜로운 우리 당이여

그대가 나에게 준것은

2. 태여나 첫걸음마 익히던 그날
당이여 그대가 펼쳐준것은
행복이 꽃으로 피여나는 땅
행복이 꽃으로 피여나는 땅
라 행복이 꽃으로 피여나는 땅

3. 푸른 꿈 설레이는 이 가슴에
당이여 그대가 안겨준것은
내 삶을 꽃펴준 크나큰 사랑
내 삶을 꽃펴준 크나큰 사랑
라 내 삶을 꽃펴준 크나큰 사랑

나에게 가장 귀중한것은

2. 빛이 없던 이 몸을 찾아 사랑속에 빛내주시고
영광의 임무 안겨주시며 믿음속에 키우셨네
아 그 언제나 나에겐 오직 하나
어머니당의 믿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라

3. 당의 믿음은 나의 한생을 이어주는 숨결이라네
만일 그것을 잃게 된다면 내 심장은 멎으리
아 그 언제나 나에겐 오직 하나
어머니당의 믿음 있으면 더 바랄것 없어라

노래부르자 어머니당의 품을

2. 뜨거운 믿음을 안기여주며
나라위한 큰일도 모두 맡겨주네
따사론 어머니 넓은 품에 안기여사는
우리의 이 행복 노래부르자
어머니당의 품을

3. 어머니뜻이면 모두 따르고
어머니 부르면 함께 나서네
은혜론 어머니 넓은 품에 안기여사는
우리의 이 자랑 노래부르자
어머니당의 품을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2.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
불구름 헤치고 락원 세우며
인민들 세기의 영웅되였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백전백승 주체위업 떨쳐나간다

3. 해와 별 빛나는 맑은 하늘에
이 기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공산주의령마루에 길이 빛나라

높이 들어라 《ㅌ. ㄷ》의 기발

작사 집 체
작곡 김덕수
행진조로 빠르지 않게
1. 캄 캄 한 누 리 에 붙 는불－인가
광 야에 타 오른 《ㅌ.ㄷ》의－기발 짓－밟 힌 겨레
불－러일 으켜 조선 혁 명새 길로 나가게－하네
짓－밟 힌 겨레 불－러일 으켜 조선혁명새 길로
나가게－하네 밝아오－리라 아 ―――
높이들고나가자 《ㅌ.ㄷ》의－기 발 아 ―――
――― 높 이 들 고나 가자 《ㅌ.ㄷ》의－기발

2. 운명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우리의 힘으로 나라 찾으리
이 기발높이 일제를 치고
삼천리에 새세상 세워나가자
이 기발높이 일제를 치고
삼천리에 새세상 세워나가자

3. 혁명을 위하여 뭉친 전위들
죽어도 이 기발 놓지 않으리
주체의 기수 따르는 길에
공산주의 새날은 밝아오리라
아 높이 들고 나가자 《ㅌ. ㄷ》의 기발
아 높이 들고 나가자 《ㅌ. ㄷ》의 기발

당중앙의 불빛

2. 귀여운 아기의 요람을 지켜
잠 못드는 어머니 마음이런가
은혜로운 사랑의 그 불빛아래
인민의 행복이 꽃피여나네
아 꽃펴나네

3. 조국의 미래를 펼치여가는
당중앙창가의 눈부신 불빛
찬란한 향도의 그 빛발속에
창조의 새날이 밝아오네
아 밝아오네

당은 나의 어머니

2. 남몰래 싹트는 이내 희망도
살틀히 꽃펴준 어머니런가
당이여 그대는 행복의 요람
기쁨의 노래를 안겨준다네
(후렴)

3. 세월이 흘러서 나이 들어도
그 품을 떠나서 살수 없어라
이 몸을 키워준 내 어머니도
그대를 어머니라 노래한다네
(후렴)

당은 어머니모습

2. 우러러볼수록 당은 어머니의 그 모습
아기가 엄마 찾듯이 내 한생 당을 따르네
아 그곁에 있으면 이 몸은 언제나
그곁에 있으면 행복에 겹네

3. 사랑속에 자라며 정이 들은 당의 그 품은
내 운명 맡겨둔 이 세상 전부이라네
아 어머니당이여 한생을 살면서
이 몸은 언제나 그대만 아네

당은 우리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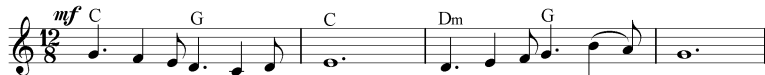
2. 그대가 열어준 앞길에
언제나 해빛은 밝아라
끝없는 우리의 희망도
그 길에 꽃피네
(후렴)

3. 따사론 그 품에 안기면
풍랑도 두렵지 않다네
주체의 위업을 빛내가는
이 영광 끝없네
(후렴)

당을 따라 빛나는 청춘

2. 청춘 청춘은 열정의 불이라네
불 불 불이여 끌수 없는 불길이여
세차게 타자 세차게 타자
당의 불씨로 타오르는 불
아 청춘은 불

3. 청춘 청춘은 위훈의 별이라네
별 별 별이여 자랑높은 금별이여
빛나게 살자 빛나게 살자
당을 받들어 영생하는 별
아 청춘은 별

당이여 그대가 위대하기에

2. 슬기도 지혜도 그 품이 주었네
크나큰 담력도 그 품이 주었네
당이여 당이여 그대가 위대하기에
혁명의 주인으로 우리는 영광 떨치네

3. 그 품이 키웠기에 인민도 영웅인민
그 손길 이끌기에 나라도 영웅나라
당이여 당이여 그대가 위대하기에
주체의 내 조국은 누리에 영광 떨치네

당의 기치따라

2. 천리마 새시대 이 땅에 펼쳐
세기를 앞당기는 조선로동당
조국과 인민의 번영을 위해
통일로 향도하는 승리의 기치
(후렴)

3. 세기의 준엄한 폭풍을 뚫고
반제반미 홰불 높인 조선로동당
수령님주체사상 빛을 뿌리며
온 세계에 휘날리는 영광의 기치
(후렴)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작사 리정술
작곡 성동춘

보통속도로 서정풍부히

2. 자장가 불러준 그 미소인가
   첫걸음 떼여주던 그 손길인가
   아 노래부르자 어머니의 그 은정
   한생을 혁명가로 키워주는 집
   아 당의 품

3. 나라엔 아들딸 천만이여도
   우리가 사는 집은 오직 하나뿐
   아 노래부르자 당중앙을 따르며
   대대로 운명을 함께 하는 집
   아 당의 품

   아 노래부르자 우리가 사는 집
   자애론 우리 당의 따사론 품을
   아 당의 품

당의 품이 제일 좋아

작사 홍기풍
작곡 려철룡

2. 그 품에 자라난 나날은
날마다 기쁨이 꽃핀 날
그 품에 키워온 우리 희망
노래로 울려가네
아 당의 품 우리는 제일 좋아

3. 사나운 눈바람 불어도
따사론 해빛만 넘치네
효성과 충성을 다하여갈
그 품은 삶의 요람
아 당의 품 우리는 제일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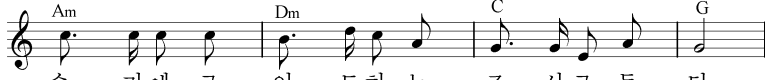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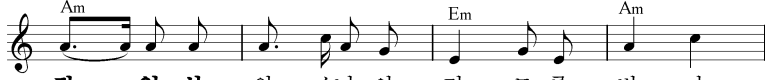
당의 품에 별처럼 빛나게 살리

2. 천년세월 흘러도 찬연한 별빛
만년세월 흘러도 변함없구나
아느냐 별들아 저 하늘의 태양
그 빛발 떠나서 너 어이 빛나랴
(후렴)

3. 나의 삶이 스스로 어이 빛나랴
당을 떠나 그 무슨 삶이 있으랴
아느냐 별들아 뜨거운 내 마음
너처럼 한생을 빛내고싶은
(후렴)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작사 정서촌
작곡 김길학

행진조로 힘있게

2. 투쟁의 기치를 높이 날리며
혁명전통 이어받은 조선로동당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아
이 땅에 락원을 펼쳐주었네
(후렴)

3. 혁명의 기치를 높이 날리며
행복에로 인도하는 조선로동당
조국통일 앞날을 밝히여주고
세계의 혁명을 인도해가네
(후렴)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2. 고요한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밀영의 그밤에도 너는야 내리였지
어머님 불러주시던 그날의 자장가소리
은혜로운 저 창가에 너 고이 실어다주렴

3. 고요한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따뜻한 송이송이 찬바람 막아주렴
당중앙창가에 사색은 깊어가는데
포근한 창가림되여 이밤을 쉬게 해주렴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작사 최준경
작곡 리종오

신심에 넘쳐 (𝅗𝅥=78)

2. 황금의 가을처럼 풍성한 시대
창조의 열매들이 주렁진 시대
주체의 성공탑이 높이도 솟아
부강한 사회주의 위용 떨치네
(후렴)

3. 반만년 처음 보는 륭성의 시대
력사에 자랑높은 영광의 시대
당의 향도따라 새 세기에로
더 좋은 우리 미래 앞당겨가네
(후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작사 김재화
작곡 김제선, 구승해

행진조로 활기있게

2. 수령님은 우리 당 당은 수령님
   만민들의 심장에 영원한 이름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시대 새 력사 누리에 펼친다

3. 반제반미투쟁의 홰불을 들고
   폭풍속을 뚫고가는 혁명의 참모부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의 당
   공산주의 새봄을 앞당겨나간다

사회주의는 당의 품

작사 리정술
작곡 최재선
랑만을 안고
1. 어 머 니 계 시는ー 정 든 집 에도
아 이 들뛰 노는ー 뜨락우 에도 해빛을안겨준ー
사 회 주 의는 당ー 의 품에서ー 꽃 피여-나네
(후렴)
라 라 라라 라 사회주의 는 라 라 라라 라 우리의행복
라 라 라라 라 사 회 주의 는 로 동 당그 품이-여 라
아 ——— 사회주의 는 로 동 당그품이여 라

2. 그늘을 모르는 밝은 길우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길우에
인민을 내세운 사회주의는
당의 품에서 번영해가네
(후렴)

3. 인민의 심장에 뿌리를 내려
그 어떤 폭풍도 허물수 없네
일심단결로 뭉쳐진 나라
당의 품에서 길이 빛나리
(후렴)

아 사회주의는 로동당 그 품이여라

10월입니다

2. 생각도 깊어지는 10월입니다
   위훈으로 수놓은 명절입니다
   인생의 밝은 길 활짝 열어준
   사랑과 믿음의 10월입니다

3. 우리 맘 불타는 10월입니다
   신심 가득 넘치는 명절입니다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갈
   충성과 효성의 10월입니다

조선로동당 만세

2. 당은 어머니의 품 당은 영원한 은인
빛나는 생명을 주고 행복에로 이끄네
인민들 한마음 뭉쳐 따르는
불패의 조선로동당 만세 만만세

3. 당은 주체의 빛발 당은 우리 향도자
수령님혁명위업 찬란히 빛내가네
누리에 존엄을 떨쳐나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만세 만만세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2. 은혜로운 당의 품에 자라난 우린 새 세대
폭풍인다 두려우랴 피끓는 청춘들아
(후렴)

3. 선렬들이 피로 지킨 사회주의 내 조국을
대를 이어 지켜가자 피끓는 청춘들아
(후렴)

어머니당중앙

2.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품 따라가네
   헤여져선 갈수 없는 어머니 우리 당을
   아 어머니 우리 당을

3. 살아 한생 숨김없이 그 품 믿고사네
   천만사연 다 나누는 어머니 우리 당을
   아 어머니 우리 당을

4. 준엄한 길 막아서도 그 품 지켜가네
   우리 운명 빛내주는 어머니 우리 당을
   아 어머니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여

작사 김재화
작곡 리면상

2. 그대의 사랑은 따사로웁고
그대의 기발은 찬란하여라
우리의 투쟁에 승리를 주고
우리의 앞길에 영광을 주네
(후렴)

3. 하늘에 비기랴 그대의 사랑
바다에 비기랴 그대의 은혜
우리는 행복한 당의 아들딸
광활한 미래로 달음쳐가네
(후렴)

어머니당에 노래드리네

2. 그대 기발에 볼을 비비며
기쁨과 아픔 모두 말했네
그대 이겨온 전쟁과 건설
더듬어보면 눈시울 젖네
(후렴)

3. 그대 선군의 기치 따르는
우리는 모두 당의 아들딸
그대 령도를 높이 받들어
일심의 대오 백승하리라
(후렴)

어머니당의 품

2. 한걸음 옮겨도 손잡아주고
한생을 걸어도 보살펴주네
당이여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나의 미래 그 품에 맡기고사네

3. 한없이 따사론 수령님사랑
그 사랑 안겨주는 자애로운 품
당이여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한생을 다 바쳐 받들어가리라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2. 어머니 우리 당이 목란꽃이 되라면
나는야 한마음 목란꽃이 되리라
백두의 흰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당을 따르며 우리 당을 따르며
티없이 살리라

3. 어머니 우리 당이 참대같이 살라면
나는야 한마음 푸른 참대되리라
모진 바람 불어와도 한생을 굽힘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우리 당을 받들어
변함이 없으리

모진 바람 불어와도 한생을 굽힘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우리 당을 받들어
변함이 없으리
변함이 없으리

언제나 당과 운명을 같이하리

작사 안호근
작곡 박무준

좀 느리게 정서적으로 속삭이듯

2. 불러 안겨준 그 은정 찾아 세워준 그 믿음
   순간인들 내 잊으면 그대의 전사랴
   아 우리의 당이여

3. 천길물속도 헤치며 만리불속도 넘으며
   나는 가리 그대 따라 이 세상 한끝까지
   아 우리의 당이여

4. 믿고 따르는 그 길에 한몸 바쳐갈 내 한생
   그 언제나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리
   아 우리의 당이여

언제나 당중앙 우러러

2. 자애론 품속에 꽃피는 우리는 한가정
이 행복 안겨준 그 사랑 끝없이 노래하네
(후렴)

아 당이여 은혜로운 당이여
세월은 흘러도 영원히 한마음 바쳐가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작사 리정술
빠르지 않고 숭엄하게
작곡 리학범
1. 저 — 멀 — 리험 한령—을 넘 어 — 걸 어
온 — 길그 얼—마 랴 — 우 리 서 — 로뜻 을같—이
하 고 — 혁 명 의 먼 길을 왔 어 라 — 영—광
넘 — 친길 을걸—어 도 — 준—엄 한 — 길걷 는다—해
도 — 당중 앙 — 따라 서 — 영원 히 한길을 가리
라 — 라 — 천년이 가 — 도만 년이—가

2.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리냐
   성스러운 기발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불타네
   한순간을 우리 살아도 두번다시 태여난대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3. 눈서리를 이겨내는 꽃은 그 향기도 영원하고
   해빛 안고 피여나는 마음 언제나 그 뜻을 따르네
   천만산악 넘어간대도 세찬 파도 헤쳐간대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우리 신념 붉게 피리라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우리는 당과 함께 승리했네

2. 고난의 천백날 웃으며 붉은기 지켰네
천리마 발구름 더 높이 기적을 세웠네
불패의 당을 따라 강국을 세우며
혁명의 군가높이 승리를 떨쳤네
아 승리를 떨쳤네

3. 평양의 종소리 또다시 우리를 부른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발걸음 높여라
위대한 당을 따라 새 세기 빛내며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만 떨치리
아 승리만 떨치리

우리 당이 고마워

2. 나라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네
 나라에서 우리 건강 보살펴주네
 (후렴)

3. 나라에서 인민은 주인이라네
 나라에서 인민은 선생이라네
 (후렴)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2. 불구름 헤쳐갈 때도 앞서헤치고
진펄이 앞길 막아서도 앞장에 섰네
그 언제나 당의 뜻 받드는
청년들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3. 붉은기아래 빛나는 우리의 청춘
붉은기 지켜 폭풍에도 흔들림없네
대를 이어 당의 뜻 받드는
청년들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

2. 빛나는 예지로 인도하는 그 기치 위대하여
우리는 다른 길 모르고 진리의 한길을 왔네
아 당이여 인민은 영광드리네
혁명의 홰불을 밝혀준 위대한 우리 당에

3. 주체로 빛내준 조국은 누리에 자랑 떨치고
찬란히 펼쳐준 미래는 광명한 번영의 세계
아 당이여 인민은 영광드리네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우리 당에

결전의 길로

2. 원쑤의 불구멍 몸으로 막은
전우의 죽음을 헛되게 말라
구령은 내렸다 탄우를 뚫고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후렴)

3. 피로써 승리해가는 이 길이
그리운 고향에 뻗치고있다
수령께 맹세한 붉은 맘으로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후렴)

내 고향의 정든 집

작사 집 체
작곡 리면상
좀 느리고 서정을 담아
사 랑 하 는내고 향ㅡ엔 정 든 집 이 있ㅡ었
네 사 랑 하 는내고 향ㅡ은 살기 좋 은곳이였
네 수령 님 이주신 땅ㅡ에 봄이 오 면씨뿌리 고 단풍
드 는가을 이 면 오곡 백 과거두었 네 아
점차 빠르게
ㅡ 그러나 정 든 ㅡ고향은 불 타버ㅡ리 고 젊
은 이는 총 을 메고 결 전 에ㅡ나섰 네 ㅡ
점차 느리게
둘 도 없는 청춘을 조 국 ㅡ 에 바쳐싸

처음속도로
우 리 기다 리 라나의 고ㅡ향 나서 자 란산천이
여 원쑤 치 고돌아 가ㅡ면 너를 안 아일으키
리 온세 상 이부럽 도ㅡ록 락ㅡ 원 을세우리
라 수령 님 의품속 에 서 길이 길 이살ㅡ리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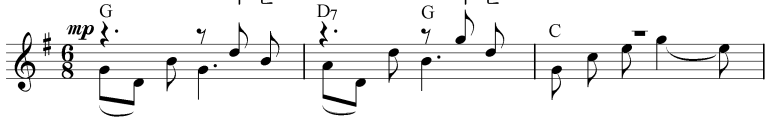
문경고개

2. 사람들이야 높으든 괴롭든
원쑤들을 부시며 그 고개를 넘었네
이 나라의 행복을 자유를 부르며
쓰러지면서 피흘리면서
높은 령 험한 길을 단숨에 넘었다오

매봉산의 노래

2. 까칠봉 눌러보아 매봉이냐
상심령 딛고서니 매봉이냐
고지마다 만세소리 구름타고 날아올제
원쑤들은 멸망이니 네 아니 장할소냐
(후렴)

3. 뭇새도 삼가 날아 매봉이냐
구름도 못 올라서 매봉이냐
원쑤들이 백번천번 우리 나라 엿보려도
철옹성의 방선이니 네 아니 장할소냐
(후렴)

봄 노 래

보통속도로 명랑하게
작사 집 체
작곡 리면상
꾀 꼴
리루리루 꾀 꼴
1. 푸 — 른산 기 — 슭에 기 름 진 들 —
가 황 철 나 무 한 — 그 루
비껴선마—을 에 백—두산 의 정기담아
맑 — 은 샘 물 솟 — 나 니 여 — 기는
내 — 마 을 사랑하 는 내 — 조 국

2. 맑고맑은 이 샘물엔 사연도 많아라
조국으로 진군하던 빨찌산대원들
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 샘물을 마셨나니
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

3. 빨찌산의 이야기 담겨진 이 샘물
이 마을의 젊은이들 마시며 자라서
장군님의 전사로 용감하게 싸웠나니
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

샘물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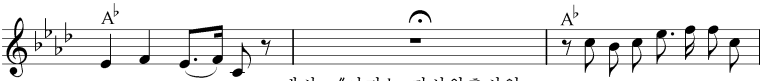
작사 최로사
좀 빠르고 명랑하게
작곡 윤승진
1. 샘 물—터 에 물 을길 러 동 이—이 고 나갔더 니
빨 래—하 던 군 인동 무 슬 금—슬 금 돌아앉 네
살그머 니 바 라보 니 그솜씨 가 서 투르 지
부 끄 러 워 도 말 —했 지 요
제 가빨 아 드 릴가 요 제 가빨 아 드 릴가 요
제 가— 빨 아 드 —릴 가— 요

2.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식사당번 군인동무 쌀 씻으러 나왔겠지
물동이를 내려놓고 쌀함지를 빼앗으며
부끄러워도 말했지요 제가 씻어드리지요
제가 씻어드리지요 제가 씻어드리지요

3.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낯이 익은 동무들이 나를 둘러싸겠지요
아름다운 처녀동무 노래 하나 불러주오
부끄러워도 불렀지요 노들강변 봄노래를
노들강변 봄노래를 노들강변 봄노래를

4.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정들은 동무들이 전선으로 떠난다죠
허둥지둥 샘물터의 진달래꽃 꺾어주며
거듭하여 부탁했지요 승리의 날 또 오세요
승리의 날 또 오세요 승리의 날 또 오세요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작사 심봉원
작곡 정진옥
활기있게
1. 달－도없 는 야 밤에 자동차달 리 다
자동차달리다가 문 뜩 세 우고 치치… 여기가어 데인가
물 었 더 －니
대사:《여기는 전선원호사업에서 소문난 순천이웨다.》
《예, 고맙습니다.》
량식을장 만하고
모조리잡아내자 얼 빠 진 양 키 달리자달 리
자 나 의 자 동 차 구슬땀흘 리면서
정 성 껏 지 은쌀을 전 － 선 으 로

2.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리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뜩 세우고 치치…
여기가 어데인가 물었더니
대사: 《예, 여기는 승냥이 양키들이
멸망한 양덕고개라오.》《예, 고맙습니다.》
승냥이 양키들이 땅에다 키스하며 발버둥친다
달리자 달리자 나의 자동차
후방의 정성어린 장갑을 솜옷을 전선으로

3.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리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뜩 세우고 치치…
여기가 어데인가 물었더니
대사: 《예, 여기는 침략자 미국놈들이 막 녹아난
유명한 신고산벌판이예요.》 《오냐, 고맙다.》
침략자 미국놈의 주머니밑 빠졌다 조선전쟁에
달리자 달리자 나의 자동차
길 아닌 길을 찾아 포탄을 실은 차를 전선으로

저격수의 노래

작사 리선을
작곡 모영일
좀 빠르게
1. 동이—트 는 새벽—길 에 찬바람찬 바람 헤 쳐가며
살금—살 금 적구를기 여 위장을하 고 숨 으—면
나 타났다나타났다 미국 놈의대가리 지그 시 한 눈감고
방 아쇠를당기면 저놈봐 라 저 놈봐 딸—라에눈이멀어
(후렴)
숨이지는양키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우 리는 —
명사수 라 이름 난부대 의 저—격 수 미 국 놈 —

2. 틀어잡은 총신에 복수를 복수를 맹세하며
살금살금 적진을 기여 매복하고 숨으면
걸어온다 걸어온다 위신차린 장교놈
흐뭇한 가슴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저놈 봐라 저놈 봐
오던것 차렷하고 자빠지는 양키놈
아하하 하하하 아하하 하하하
(후렴)

전사와 처녀

2. 꽃이 피고 새우는 봄철이 다시 돌아와
나의 고향 버들숲엔 귀여운 꾀꼴새 울겠지
내 가슴 붉은 피로 조국을 지켜싸울 때
처녀야 나를 위해 봄노래 불러다오

전차병과 처녀

작사 집 체
작곡 김옥성
빠르고 경쾌하게
1. 푸른들넓은벌ㅡ 판 에 전차한대달리다 가
전 차한대달리다가 문 득ㅡ서더니 웃 뚜껑벌 컥열고
전 차병내려와서 물 한ㅡ그 릇 푸 려 는 데
물 한그릇푸려는 데 네 지 평
선 ㅡ아 득 한 벌 판 전 차한 대
달 리 는 데 ㅡ 분 홍 손수건
분 홍 손수건 펄펄펄 오래나붓 겨 ㅡ

2. 박우물 맑은 샘터에 마을처녀 나오다가
마을처녀 나오다가 깜짝 놀랐네
그 모습 틀림없는 어릴 때 옛 친구라
말 못하고 그냥 섰네 말 못하고 그냥 섰네

지평선 아득한 벌판 전차 한대 달리는데
분홍손수건 분홍손수건 펄펄펄 오래 나붓겨
해질녁 샘터에서 인민군가 들려와라
인민군가 들려와라

전호속의 나의 노래

2.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우리 행복 삼키려는 원쑤 미제 쳐부시고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라

정찰병의 노래

작사 집 체
작곡 김옥성

2.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철조망 끊고서 감시병 잡아
재빨리 입을 막고 묶어오며는
아하아 알수 있다 모든 정보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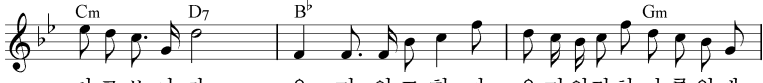
3.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적진지 뚫고서 작전도 꺼내
위험한 수십초간 비밀 들추면
아하아 알수 있다 살금살금
(후렴)

조국보위의 노래

2. 우리의 부모형제 우리가 사는 곳
제국주의침략에 한치인들 밟히랴
(후렴)

3. 정의의 총칼로써 원쑤를 무찔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
(후렴)

진군 또 진군

2.진격이다 진격이다 앞으로 진격 또 진격
남녘땅을 해방하러 질풍같이 나아간다
조국의 통일 위해 번영을 위해
이 땅에서 원쑤 미제 쓸어버리자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결사전에 나아간다

해안포병의 노래

2.쏘라 쏘아라 장하고나 우리들의 포야
쏘라 쏘아라 바로 쏘아라
원쑤의 비행기 바다깊이 수장하여
조국을 보위하는 영웅이 되자
월미도 푸른 물도 노래할
그날을 위하여 싸워가자
(후렴)

3.쏘라 쏘아라 영광에 찬 우리들의 포야
쏘라 쏘아라 바로 쏘아라
조선인민의 길이 빛날 자유 위해
온 세계 인민들은 한데 뭉쳤다
장군님 가르치신 길에서
승리의 기발이 휘날린다
(후렴)

아무도 몰라

작사 정서촌
작곡 박한규
즐겁게
mp Gm
1. 오 솔 길 덤불 에 치 마 폭 찢–겨 도 처 녀 는 춤 추듯–
D7 Gm
집 으로달리 네 김 매 던 호 미자루 집 – 어 던–지 고
Gm D7 Gm E♭
달려가 는처 녀마음 아 무도 몰 라 돌 다 리 건 느다
Gm Cm B♭ Cm F
내 물 에 빠 져도 부 끄 럼 모 르고 집 으로달리 네
Gm D7 Gm
전 선에서찾 아온 한 장 의 편 지를 처 녀 가 받 은줄–
D7 Gm mf B♭ D7 Gm B♭
아 무도몰 라 풀 먹 던 송 –아 지 놀라 서 —
점차 느리게
D7 Gm E♭ B♭ Dm
뛰 —— 고 우 물 가 – 의 할 머 니 도

2.오솔길 덤불에 치마폭 찢겨도
처녀는 춤추듯 집으로 달리네
김매던 호미자루 집어던지고
달려가는 처녀 마음 아무도 몰라
미국놈 백놈이나 단매에 족치고
금별의 공을 세운 그 소식 받았다네
수령님품에서 영웅된 그 사연
처녀가 받은줄 아무도 몰라

압록강 2천리

작사 조령출
작곡 리면상
느리지 않고 폭넓게
어 야 더 허야 어 야 더 허 야 어 야
더 허 야 어 야 더 허 야 압 록 강 —
이 — 천 리 에 노 를 저 — 어 라 얼 음 장 을
헤 치 면 서 떼 는 흐 른 다 어 야 더 허야
어 야 더 허 야 —— 어 야 더 허야 어 야 더 허
점차 느리게
야 에 헤 야 더 허 — 야
빠르지 않게
1.백 두 산 의 나 무 로 구 나 천 년 이—나 자 란 —
이 깔 나 무— 참 나—무 는 떼 를지 —어 서

2.강언덕엔 발갈이하는 처녀들의 노래
전선으로 좋은 선물 보내주자네
이깔나무 참나무야 너도 가거라
너 가는 곳 조국건설 꽃이 피리라
어여차 지여차 어야더야 어야더야

얼룩소야 어서 가자

작사 조령출
작곡 김진명
멋들어지게(굿거리장단)
1. 식 량 바 리 — 등—에 — 싣 고
3. 네 가 실 은 — 식—량 — 바 리
얼 룩 소야어—서—가자 — 쩔렁쩔 렁—방울—소—리에
원 쑤 에겐폭—탄—이다 — 천리라 면—천리를걸——어
잠자던새도반—기는—구나 — 이 랴이소—야어서—가자
전 —선으로어—서 — 가자 — 이 랴이소—야어서—가자
얼 룩소야— 어서—가자 2. 원 쑤 놈의시—한— 탄 에
얼 룩소야— 어서—가자
귀 한 내딸잃—었—단다 — 이내원 쑤—갚아 주——는
인—민군대를찾—아—가자—— 이 랴이소—야어 서—가자
점차 느리게
얼 룩소야——어서—가자 D.C. 식 량 바 리 ————

mp Cm
※
Gm
3
3
등─에
싣 ─고─ 이랴─(쯔쯔쯔)
처음속도로
mf Gm
이 랴 이소─야어서─가 자
얼 룩소야 ─ 어서─가자

(기보) (연주)
※

우리 님 영웅되셨네

2. 그대가 집에 없던 지난 봄에도
춘기파종 먼저 하려 바빴더랬죠
원쑤의 포탄자리 메운 곳에도
탐스럽게 조이삭이 패여났어요
(후렴)

3. 가슴에 훤하도록 훈장 탔다고
우리 님아 자랑만을 하지 마세요
미제를 쳐부시는 불타는 이 맘
일 잘하고 글 배우니 바쁘답니다
(후렴)

우리의 최고사령관

2. 이밤도 전우들 산발에서 싸우며
동트는 고지에 군기를 날린다
피끓는 가슴들 우러러서면
승리로 부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후렴)

3. 용감한 인민군 미제를 물리쳐
승리한 그날엔 자유론 내 조국
끝없이 번영할 그날을 위하여
받들어나가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후렴)

가마마차 달린다

작사 김정춘
작곡 설명순
빠르고 명랑하게
1.풍 년이든농장벌로 가마마차달린다 대 ― 오 의뒤를따라
가마마 차달린다 마 차엔살찐고기 풍성 한 야 채
중대살 림 잘꾸린 ― 우 리솜씨지 어 허 ―(쩌 쩌 쩌쩌)
채 찍 을후리는 가 마 마 차 수 펄 펄 뛰 는잉어 도
건 져 왔다네 협 동농 장 양 어 장이 눈 앞 에 보 이니
고 래같 은우 리 고기 생 각 나 네(헤 이) 전 술 훈 련
가 는길 아 득―히 멀 어 선 들바 람 그 늘속에

2.곧게 뻗은 신작로로 가마마차 달린다
병영으로 병영으로 가마마차 달린다
마차엔 취사원들 만족한 웃음
만수진찬 대접한 기쁨이라네
어허 혁명가 부르며 앞선 전우들
이런 때 그 기쁨 얼마나 크랴
공산주의 높은 언덕 눈앞에 그리며
무쇠다리 무쇠팔로 활개치네
병영으로 가는 길 아득히 멀어
전우들의 익살속에 웃음도 좋지만
그보다 노래는 얼마나 힘있는가
혁명가로 흥겨운 마차 혁명가로 흥겨운 마차
신작로로 달랑달랑 달려간다네

강철의 군기는 군대의 생명

작사 최순철
작곡 리 광

2.군기속에서 병사의 용맹을 키우고
군기속에서 결사의 신념을 다진다
(후렴)

3.천만의 대적 짓부실 무적의 총폭탄대오
군기 떨치며 선군의 위업을 받든다
(후렴)

거세찬 파도와 같이

2.절벽이 막아서도 내닫는 파도여
언제나 두렵없는 네 기상 우린 좋아
조국이 명령 내리면 결전의 함성높이
너처럼 돌격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파도 파도 거세찬 파도여

3.바위에 부서졌다 되솟는 파도여
천백번 노도치는 네 넋이 우린 좋아
장군님 지켜 싸우다 이 한몸 찢기여도
너처럼 격랑치며 위훈을 빛내리라
파도 파도 거세찬 파도여

고향은 병사와 함께

2.학창시절 꿈을 안고 거닐던 기슭
고향마을 앞내벌의 작은 시내물
훈련의 산발넘어 달릴 때며는
가슴에 흘러들어 속삭여주네
고향을 사랑하라고 고향을 지켜가라고
아 속삭여주네

3.네가 있어 나도 있는 정든 고향아
천리라도 만리라도 함께 있으리
불타는 위훈에로 나를 부르며
언제나 이 심장과 함께 있다네
고향은 나의 어머니 고향은 나의 조국
아 나의 조국

고향에 전해다오

작사 안정기
작곡 김철주
보통속도로 깊은 서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mp
1. 달빛 밝은 이—밤 에 손풍 금울 려 가 니
병사 의뜨 거—운 이 —마음 고— 향 —에나 래—치
네 —벼꽃피 는 —들길지 나 —바래— 주 신 어—머 니
잘가 거라 손저어 주 —시던 그— 모 —습어 려—오 네
오 —아———— 전해다 오 —그—리 운 —내고향 에
조국 의아 들—로 영 —생할 병— 사 —의이 맹—세 를

2.전화의 날 아버지 싸우던 고지우에
 오늘은 영웅의 이 아들 총잡고 지켜섰네
 피로 지킨 한치 땅이 소중한줄 안다고
 손풍금아 전해주려마 어머니 그 품으로

3.대를 이어 가슴에 금별을 빛내라고
 초소에 세워준 어머니 그 진정 뜨거워라
 나라위해 위훈 떨쳐 기쁨드릴 한마음
 가락마다 담아싣고서 고향에 전해다오

 아 전해다오 그리운 내 고향에
 조국의 아들로 영생할 병사의 이 맹세를

구름속으로 사라진 마차

작사 림종근
작곡 한삼관
경쾌하게
1. 덜 렁 덜 렁 삼 두 마 차 《토 벌》대 마 차 ———
빨 찌 산 들 빼 앗 아 몰 고 가 는 데 《토벌》대 들 등 달 아
헛 총 질 하 며 ——— 미 친 듯 이 헐 레 벌 떡 다 그 쳐 오 네
1. 2.
야 — 저 꼴 봐 라 그 런 데 웬 일 인 가 —
산 굽 이 를 방 금 돌 은 삼—두 나 마—차 감 쪽 같 이 연 기 처 럼
사 — 라 — 졌 으 니 사 무 라 이 게 — 다 짝
눈 — 알 이 데 굴 데 굴 데 굴 데 굴 와 — 와 하 하
와 — 와 하 하 동 서 남 북 주 름 — 잡 — 는
빨 찌 — 산 — 들 — 쩌 쩌 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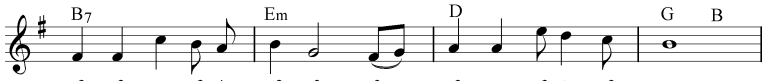
2.덜렁덜렁 산비탈 굽이돌아
  수림속 령길로 사라진 마차
  안개낀 길천령에 바람 일구며
  혁명가 노래높이 달려가네
  야 와하하 그런데 저걸 보소
  빨찌산의 번개같은 기습사격에
  어리둥절 살피던 침략자 일본놈
  또다시 녹초되여 눈알이 데굴데굴 데굴데굴
  와 와하하 와 와하하
  군수물자 공급한 대가이라네
  쩌쩌쩌 통쾌하다네

3.어서 가자 빨리 가자 빨찌산마차
  로획물자 가득 싣고 달려가네
  조국광복 그날을 주름잡으며
  혁명가 노래높이 달려가네
  야 구름속을 날아가는 룡마라네
  통쾌한 기습전에 승리를 안고
  달려라 어서 가자 덜렁덜렁 덜렁덜렁
  몰고간다네

군가에 발을 맞추자

2. 군가를 부르며 걸어온 우리의 병사시절
위훈의 자욱으로 빛나고있다
병사의 그 걸음새 변치를 말고
동무여 발걸음 맞추자
(후렴)

3. 군가를 부르며 나가는 씩씩한 저 대오에
마음의 보폭을 맞추며 살리
조국을 위한 길에 정보로 걷자
동무여 발걸음 맞추자
(후렴)

군대는 규률 규률은 군대

2.규률은 열가지 준수사항이
몸에 밴 병사의 모습
규률은 열가지 관리준칙을
빛내는 상관의 자세
(후렴)

3.규률은 장군님명령일하에
하나로 따르는 군풍
규률은 백승을 떨치여주는
일당백 전투력원천
(후렴)

군대식이 멋있지

2.장군님 보내주신 미더운 우리 군대
백가지 농사일도 만능의 선수라네
알곡고지 기어코 점령을 하자
김매기도 앞장서니 처녀들이 하는 말
군대식이 멋있지 군대식이 멋있지
정말 멋있지

3.들판에 군인정신 가득히 넘쳐나니
황금의 이삭들이 춤추며 설레이네
풍년보고 드리자 어서 드리자
탈곡장이 들썩하니 처녀들이 하는 말
군대식이 멋있지 군대식이 멋있지
정말 멋있지

군민아리랑

작사 최준경
작곡 엄하진
흥겹게 (♩.=126)
1.군 ── 대 ─ 는 인 민─ 들의 미 더 운 아 들 딸 이
요 인 ── 민 ─ 은 병 사─ 들의 정 다운 부 모 형 젤
세 정 이 통 해 한 가 정 아 리 아 리 랑 뜻 이 통 해 한 마 음
아 리 아 리 랑 군 민 일 치 ─ 꽃 피 우 니
노 래 춤 흥 ── 이 로 세 ─ 아 리 아 리 랑 ──
스 리 스 리 랑 군 민 ─ 아 ── 리 ─ 랑 ─

2.군대는 인민위해 생명도 바치여가고
인민은 군대위해 만가지 정성 다하네
오가는 맘 끝없어 아리아리랑
혈육의 정 뜨거워 아리아리랑
군민일치 꽃피우니 한마음한뜻일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군민아리랑

3.군민이 뭉친 힘은 온 사회 밑뿌리되여
장군님 선군령도 승리로 받들어가네
어깨겯고 손잡고 아리아리랑
마음맞춰 발맞춰 아리아리랑
군민일치 꽃피우니 내 나라 강국일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군민아리랑

군민일치 노래부르자

2.군대는 전방에서 인민은 후방에서
내 나라 지키는 우린 한형제
(후렴)

3.이 땅에 원쑤들이 덤벼든다면
군대와 인민은 함께 싸우리
(후렴)

군민의 념원

보통속도로 뜨겁게 (♩=69)
작사, 작곡 리학범
1.험 산 준령을 넘고넘으며 전연천리찾아주시
고 철의대오를 돌아보시며 승리 의힘키워가시
네 안 녕 히부디안녕 히 머 나 먼최전연길
에 장 군 님건ㅡ강ㅡ 은 조ㅡ 국 의운명입니
다 다 안 녕 히부디안녕 히 영
원 한선군의길 에 장 군 님건ㅡ강ㅡ
은 군ㅡ 민 의념원입니 다

2.해빛넘치는 산중초소에 은정어린 사진 남기고
별빛흐르는 철령을 넘어 무적의 총 안겨주시네
안녕히 부디 안녕히 조국을 지키는 길에
장군님건강은 민족의 번영입니다

3.바람세찬 엄동설한에 우리 공장 다녀가시고
향기그윽한 고향마을에 행복의 꽃 피워주시네
안녕히 부디 안녕히 준엄한 선군의 길에
장군님건강은 군민의 념원입니다

안녕히 부디 안녕히 영원한 선군의 길에
장군님건강은 군민의 념원입니다

군민의 정 넘치는 우리의 포구

2.산뜻한 군복은 눈이 부시고
가벼운 댕기는 해풍에 나네
구리빛 그 얼굴 몰래 엿보며
바다가처녀들이 소곤거리네
어쩌면 저렇게 멋쟁이일가
해군엔 미남자만 골라뽑나봐
어쩌면 저렇게 름름도 할가
미더운 우리 해병들
(후렴)

3.어느새 또 하루 다 지나가고
정들은 해병들 떠나간다네
허전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바다가처녀들이 손을 흔드네
잘 다녀가시라 해병들이여
또다시 오시라 해병들이여
군민의 정 안고 다시 만나요
미더운 우리 해병들
(후렴)

군민의 정을 담아 발동소리 울려가네

2.군대와 함께 일할 때에는 저절로 힘이 나요
이 넓은 농장벌에 만풍년 들면
초소의 병사들도 힘이 난다오
만풍년고지를 향하여 나가는
발동소리 정다웁게 들판에 울려가네

3.농촌을 돕고 군대를 돕는 군민은 한가정
오늘의 풍년벌도 함께 가꾸고
래일의 싸움길도 함께 걸으리
수령님 따르는 충성의 길에서
군민일치 붉은 꽃은 영원히 붉게 피리

군항의 저녁

작사 리범수
작곡 설명순

보통속도로 서정을 담아

2.행복의 불빛들은 물결에 설레고
대지의 금나락향기는 갑판에 풍겨오네
저 멀리 파도너머 수평선끝에 가도
군항의 정든 품을 잊은적 없었네

3.잠들줄 모르는 거세찬 파도여
해병은 언제나 너처럼 폭풍을 안고사네
수령님 밝혀주신 승리의 항로따라
조국의 바다를 지켜 또다시 떠나네

군인선서 다진 날

2.총잡은 병사가 이날에 뗀 걸음은
험산준령 만리에 정보로 이어지리
믿으시라 조국이여 이 아들은 그대의 청춘
불비속도 헤치며 위훈만 새기리라

3.결전의 그날에 군공을 떨쳐가며
육탄되여 지켜갈 병사의 군인선서
자랑하라 조국이여 이 아들은 영웅이 되여
장군님께 다진 맹세 빛내여가리라

그날에 병사를 보라

2.수령님 빛내신 어머니조국
이 한몸 다 바쳐 지켜가자고
병사는 맹세로 가슴 태우며
서리발총창을 안고산다네 안고산다네
(후렴)

3.좋은 때 백날을 따르기보다
결전의 하루가 더욱 귀중해
병사는 그 신념 가슴에 안고
승리의 만세를 높이 부르며 싸워 이기리
(후렴)

그리움 넘치는 초소

2.명사수꽃송이 달 때에도
그 마음은 더해지고
펼치는 춤노래가락에도
그 소원은 넘쳐나네
(후렴)

3.날마다 새힘을 안겨주는
그리움은 우리의 삶
어버이 그 품에 모두 안길
그날속에 우리 사네
(후렴)

그립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2.초소에 밝은 별빛 고요히 내릴 때에도
전호에 가슴대고 그 이름 불러봅니다
한없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 한밤은 그 어데서 사색을 펼치십니까

3.선군의 천만리길 가시는 그 자욱따라
간절히 그리는 맘 꿈에도 달려갑니다
한없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병사들은 축원안고 안녕을 바라옵니다

그 사랑 언제나 안고삽니다

2.수령님 아끼신 병사들이라
넓으신 한품에 안아주실 때
그날의 어버이 그 품이여서
목메여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후렴)

3.장군님 우러러 부른 노래는
사랑에 보답할 병사의 맹세
장군님 모시고 찍은 사진은
병사의 값높은 영광입니다
(후렴)

그이를 보위하여 총폭탄되리

2.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네
(후렴)

3.하늘땅 열백번 뒤집힌대도
우리의 신념은 버릴수 없네
(후렴)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를 보위하여 총폭탄되리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리라

2.통일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떠나간 동지들 그 얼마더냐
혁명의 전우들의 그 념원 안고
기어이 원쑤 미제 쓸어버리자
(후렴)

3.수령님품에서 나서자라난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갈라진 조국을 그대로 두고
그 어찌 수령님의 전사라 하리
(후렴)

나는 초병의 안해

2.전연초소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초병의 안해들이 혁명가라 하셨네
우릴 불러 기념사진 찍어주실 때
장군님 그 사랑에 장군님 그 사랑에
목메여 울었어요

3.평양은 천리길 멀고멀어도
장군님가까이 우리 삽니다
충효의 한마음 불태워가며
언제나 초소생활 언제나 초소생활
꽃피웁니다

나는야 선군시대 총대처녀

2.처녀시절 고운 꿈 초소에 수놓는
처녀병사 이 가슴엔 자랑도 많아
선군의 뜻 받드는 복무의 이 길에
총과 함께 위훈을 새기여가네
(후렴)

3.군가속에 걸어온 청춘의 자서전
내 조국은 제일먼저 읽어주리라
선군의 길 따라야 행복도 영원해
총대사랑 대대로 이어가리라
(후렴)

나는야 장군님의 병사라네

2.젊음을 바쳐갈 일터는 많아도
나는야 총을 멘 병사가 되였네
병사가 있어야 조국도 있기에
성스런 군기앞에 선서를 하였네
아 나는야 병사 장군님의 병사라네

3.위대한 장군님 진두에 모시고
나는야 한생을 병사로 살리라
병사가 있어야 평화도 있기에
내 나라 사회주의 총대로 지키리
아 나는야 병사 장군님의 병사라네

나의 편대

2.부모의 다심한 그 사랑은
하늘에 못 미쳐도
전우의 뜨거운 그 사랑은
만리길 같이 가네
주도기 앞서니 힘 솟고
대렬기 따르니 든든해
언제나 함께 가네 정든 나의 편대

3.저 하늘 날으는 기러기떼
폭풍에 흩어져도
장군님품에서 자란 편대
용감히 뚫고가네
떠나갈 때에도 나란히
돌아올 때에도 나란히
언제나 함께 가리 정든 나의 편대

나의 함은 정든 조국땅

작사 최준경
작곡 조경준

2. 수평선 물들이며 노을이 피면
   합선엔 애국가의 노래 울리네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
   창공에 날리며 새날 맞네
   (후렴)

3. 뭍에서 먼 바다에 우리 있어도
   조국의 숨결 안고 위훈 떨치네
   장군님 맡겨준 나의 함은
   불락의 요새로 끄떡없네
   (후렴)

녀성해안포병의 노래

2.연약한 팔뚝에 장수힘 키워
육중한 강철대포 우리는 길들였다네
서둘러 노래를 요청 마시라
우리의 노래는 명중의 포성
우리들은 장군님의 녀성해안포병

3.위훈을 꿈꾸는 처녀이라면
흰파도 설레이는 해안포진지로 오라
싸움의 그날엔 용맹 떨치고
통일의 축포도 우리가 쏘리
우리들은 장군님의 녀성해안포병

노래속에 관병의 정 흘러넘치네

2.한가마밥 나눠가며 훈련길에 꽃피운 정
숙영지의 이밤에는 노래되여 울려가네
우리 맏형 우리 막내 가락 또한 잘 맞으니
하늘가의 형제별도 부러워서 바라보네
아 바라보네

3.뜨거워라 관병의 정 노래속에 흘러넘쳐
온 중대가 합창으로 소리높이 이어가네
장군님의 한품에서 생사고락 같이하며
싸움의 날 승전가도 우리 함께 부르리라
아 부르리라

내 사랑 푸른 하늘

2.아득한 저 하늘엔 내 숨결 어리고
뜨거운 심장의 고동소리 울리네
나는야 하늘에 정이 든 사나이
아 나의 하늘 내 사랑 푸른 하늘

3.사랑하지 않는다면 지킬수 없으리
조국의 운명을 날개에 싣고서
또다시 날으리 저 푸른 하늘로
아 나의 하늘 내 사랑 푸른 하늘

다음번화점은 내가 막으리

2.푸르른 희망 안고 불타던 청춘
순간에 빛내인 영웅들의 삶
(후렴)

3.조국을 위하여 심장을 바친
청춘들 그 삶은 영원하여라
(후렴)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2.어제날 우리 부모 억눌린 무산자
오늘은 보람찬 천리마기수
그렇다 당이 있어 조국은 억세고
그 품에서 인민들은 행복 누리네
(후렴)

3.수백만 힘과 지혜 굳게 뭉친 로동당
김일성원수님 령도하시는 당
그러기에 초소에 선 영예 높아라
초병들 앞길에는 승리뿐이다
(후렴)

당을 따라 조국을 통일하리라

2. 피를 즐기는 승냥이 미제 피로써 복수하리라
불을 즐기는 침략자 미제 불로써 징벌하리라
높이 들자 계급의 총검 당중앙따라
원쑤 미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리라

3. 조국 삼천리를 가슴에 안고 병사는 맹세다진다
우리 세대에 통일 못하고 후대에 넘겨줄소냐
높이 들자 승리의 총검 당중앙따라
원쑤 미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리라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리

2.향도의 그 해발 따르는 길에 승리는 빛나라
피끓는 심장을 당에 바치여 위훈을 아로새긴다
(후렴)

3.한걸음 걸어도 당을 위하여 충성은 불타라
폭풍도 격랑도 뚫고헤치며 영원히 당을 따르리
(후렴)

당의 사랑 넘친 나의 초소

2.오는 봄 피는 꽃 여기는 늦어도
철따라 단열매 먼저 준다네
조국땅 끝에도 그 사랑 넘쳐
초소는 언제나 풍성한 가을이여라

3.우리는 조국의 안녕을 지키고
우리의 운명은 당이 살피네
고마운 그 품은 한없이 넓어
병사는 언제나 요람에 안기여사네

동무들아 군대로 가자

2.군복입은 그날에 첫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과 어머님께 보내드리리
대렬을 맞추며 노래를 부르자
나가자 나를 키운 당을 위하여

3.후대들이 우리의 청춘시절 물으면
땀배인 병사시절 군복을 보이리
나가자 군대로 조국을 위하여
통일의 광장까지 정보로 앞으로

동지애의 전선길

2.령길에서 군감자도 함께 나누던
사연깊은 모닥불이 어려오는 길
성스런 동지애의 노래 부르며
한마음 생사운명 합친 길이여
아 장군님 전선길 동지애의 전선길이여

3.열화같은 사랑으로 이어진 천리
하늘같은 믿음으로 이어진 만리
이 세상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할
일심의 선군강국 세운 길이여
아 장군님 전선길 동지애의 전선길이여

대동강아 너를 지켜 싸우리

2.원쑤들이 이 땅을 삼키려 해도
대동강기슭에 얼씬 못하리
한없이 깨끗한 너의 단물을
한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하리
(후렴)

3.승리의 날 정다운 너의 그 품에
땀배인 군복채 뛰여들리라
철갑모가 넘치게 맑은 물 담아
후련하게 축배를 들고들리라
(후렴)

대렬훈련나날에 병사는 자랐네

2.상등병군사칭호 으시대면서
정보로 나아가는 내 모습 보게나
대렬도 잘 맞추고 동작도 숙련되니
지휘관은 만족하여 대렬감사 준다네
훈련의 나날에 충성의 나날에
우리모두 일당백의 병사로 자라났다네

3.병사의 대렬훈련 멈추지 말자
혁명은 쉬엿구령 내리지 않았다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로 맞추며
통일의 광장에도 정보로 들어서리라
수령님만세를 높이 부르며
혁명의 대오속에 영원히 발맞춰가리라

령 넘어 오고가는 정

2.봄철이면 천리벌에 모내기 도와주려
병사들 노래높이 령 넘어 찾아와요
가을이면 붉게 익은 첫 사과 따이고서
농장마을처녀들 농장마을처녀들 초소로 찾아가요

3.부르면 친형제요 만나면 한가정
령을 넘어 오가는 정 끝없이 깊어져요
수령님 한품에서 꽃피는 군민일치
싸움의 그날엔 싸움의 그날엔 더욱 붉게 피여나리

막내딸 복순이 고사총수되였다오

2.여보소 농장원들 이내 말 들어보소
막내딸 복순이가 영예표창 받았다오
훈련의 나날속에 장수힘을 키워가니
일손도 성수나서 풍년세월 앞당긴다
에헤루화 데헤루화 이내 딸이 지켜가는
저 푸른 하늘높이 로적가리 쌓아가세

3.여보소 농장원들 내 딸애 사진 보소
보름달 솟았느냐 군복차림 미끈해라
대장부와 어깨겯고 조국하늘 지켜가니
아들을 못 낳다고 누가 감히 말하리오
에헤루화 데헤루화 고사총수 이내 딸을
그 누가 키워줬나 수령님이 키워주셨지

말하라 선군길아

2.한낮에 고지로 오르시는
장군님 따르는 전사의 생각
야전복자락의 저 풀씨는
어디서 달린것일가
말하라 선군길아 높은 령 험한 산발아
너만이 알고있는 장군님 헌신의 그 길을

3.깊은 밤 최전연 떠나시는
장군님 바래는 전사의 생각
평양에 닿으면 새벽인데
이밤은 언제 쉬실가
말하라 선군길아 하늘의 밝은 별들아
너만이 알고있는 장군님 헌신의 그 길을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2.병사가 인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풍요한 들판과 마을에 물어보라
그러면 말해주리 농장을 도와 가꿔준 이삭들이
등에 업혀 물 건너간 유치원아이들이

3.병사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넘어온 산발과 초소에 물어보라
그러면 말해주리 구슬땀 배인 전호가 그 흙이
별처럼 빛나는 병사의 눈동자가

먼저 찾아요

2. 서로 돕고 이끌며 강해진다오
군대도 나라도 강해진다오
생사고락 같이할 한식구처럼
군대는 인민을 먼저 찾아요
(후렴)

3. 위대하신 장군님 높이 모시고
승리만을 떨치는 군대와 인민
눈보라도 불비도 함께 헤치며
군민일치 아름답게 꽃펴간다오
(후렴)

명랑한 취사원

작사 박원철
작곡 김문규
좀 빠르게
mf Em
1. 나 무리 벌 사 투— 리 가 두 드—러 져 도 —
Em G
배 따라기 잘 넘—기 는 취사—원동무 고 지에 선 싸리—나무
C Em Bm Em
광 주 리 에 다 콩 나물을 기 르—기 도 선 수—였지만 ——
Em Am B
그 에 겐 오늘까—지 — 아 직 한 번— 도
Am Em B Em
밥 태운 일— 없 었—다—고 자 랑 이 크— 네 ——
f Em Am Bm Em
밥 태 운 일— 없 었다 고 자 랑 이—크— 네 ———
1. 2. 3.
Bm Em Bm Em
자 —랑 이 크— 네 힘 을 다 진 다

2.봄보리도 푸른 고향 안해에게로
훈시하듯 써보내는 한장의 편지
임자는 세식구를 시중하지만
대장부는 한개 중대 시중한다고
협동의 십리벌도 가꿔가면서
암돼지도 기르라고 부탁이 많네
암돼지도 기르라고 부탁이 많네
부탁이 많네

3.풋고사리 무쳐놓은 산나물채는
입맛 돋궈 곱배기만 청해달라네
기름 치고 고추 뿌린 비빔국수에
정다웁게 입장단을 맞춰가면서
그대가 정성들인 야전료리로
우리들은 방선에서 힘을 다진다
우리들은 방선에서 힘을 다진다
힘을 다진다

명령만 내리시라

2.락동강모래불에 어린 전우의 뜨거운 넋은
오늘도 근위병사들의 가슴에 불타고있다
위대한 장군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조국을 위해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리

3.혁명의 붉은 피가 스민 적기가 높이 부르며
우리는 붉은기를 들고 결전의 길로 나가리
위대한 장군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조국을 위해 정의를 위해 승리를 떨치리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 사단에

2.천하제일 우리 령장 진두에 모셔
위훈만을 새겨온 강철의 사단
결사의 총폭탄 그 정신 안고
주체의 내 조국 지켜가리라
(후렴)

3.위대하신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승리만을 떨쳐갈 불패의 사단
혁명의 붉은기 높이 날리며
통일의 광장에 축포 올리리
(후렴)

목숨바쳐 지키리라 우리의 최고사령관

2.총검을 잡을 때도 그 신념 불타오르고
전호에 나설 때도 결사의 피는 끓어라
그이 없인 우리의 운명도 찬란한 미래도 없어
목숨바쳐 지키리라 우리의 최고사령관

3.장군님안녕지켜 이 한몸 바치여갈 때
우리 삶 영생하고 조국은 번영하리라
결사옹위 한길우에 승리와 영광이 있어
목숨바쳐 지키리라 우리의 최고사령관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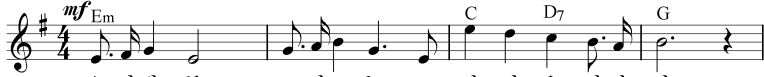
2.전사들 제일로 사랑하시며
금별로 빛내주시네
예지의 그 빛발 앞길을 밝혀
우리의 승리가 있네
(후렴)

3.그이가 우리를 이끄시기에
마음은 든든하다네
주시는 명령을 높이 받들어
주체의 위업 떨치리
(후렴)

묻지 말라

2.이 한몸 육탄되여 흩어져날릴 때
묻지 말라 그 나이 몇살이던가를
한생을 순간에 빛나게 산 나이
내 조국과 더불어 내 조국과 더불어
길이 영생하리라

3.청춘도 생명도 값높이 바친
영웅들 그 부탁 무엇이였던가
어머니 내 조국을 위해서라면
나는 한생 영원히 나는 한생 영원히
총잡은 병사가 되리

미제가 덤벼들면 죽음을 주리

2.원쑤 미제 이 땅우에 또다시 불질하면
주체조선 명예 걸고 단매에 족치리라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증오는 불타오른다
정의의 총칼로 자위의 포화로 죽음을 주리라

3.원쑤 미제 쳐부시는 판가리싸움에서
당중앙이 안겨준 힘 승리로 떨치리라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천백배 복수하리라
멸적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노도쳐가리라

매들은 높이 날으네

2.정깊은 어머니 눈빛과 같이
그 불빛 나를 살피네
매들의 날개를 받들어주며
항로를 밝히여주네
향도의 그 불빛 따라서
매들은 높이 날으네

3.하늘길 만리를 날아간대도
그 불빛 내곁에 있어
언제나 당중앙 정문가에 선
그 마음 안고 날으네
향도의 그 불빛 지키여
매들은 높이 날으네

바다는 잠들지 않네

2.적함을 맞받아 육탄이 되여 피로써 승리의 길을 열은
영웅들 그 넋을 그 넋을 안고서 설레는 바다여
오늘도 용감한 우리의 해병들을
위훈에로 부르며 위훈에로 부르며 바다는 잠들지 않네

3.통일의 그날 다도해기슭에 우리의 장군님 모시고갈
해병들 불타는 맹세를 안고서 설레는 바다여
장군님 우러러 심장으로 다진 맹세
격랑으로 솟구쳐 격랑으로 솟구쳐 바다는 잠들지 않네

밤나무집 그 총각 영웅비행사됐대

2.뒤동산에 밤나무도 힘겹게 오르더니
오늘은 창공높이 훨훨 날은대
공군대학 최우등을 졸업한 그는
단 한방에 양키날개 쏘아떨궜대
밤나무집 그 총각 밤나무집 그 총각 영웅비행사됐대

3.비행훈련 모범으로 용감한 그 동무
오늘은 비행편대 지휘관됐대
보내오는 야전엽서 소식 짧아도
지켜가는 하늘자랑 끝이 없다네
밤나무집 그 총각 밤나무집 그 총각 영웅비행사됐대

방사포병의 노래

2.고향의 부모여 형제여
　신심에 넘쳐 들으시라
　방사포 울리는 뢰성에
　새힘이 솟아나리라
　(후렴)

3.장군님 명령만 내리면
　포문을 열리 일제사격
　방사포 날리는 불줄기
　그대로 승리축포다
　(후렴)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2.우리의 절반땅 삼킨 침략자 용서할소냐
분노의 활화산 터쳐 적진을 태워버리자
불타라 심장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수령님유훈 지켜 수령님유훈 지켜
기어이 통일하리

3.간악한 원쑤를 두곤 평화란 있을수 없다
판가리싸움의 길로 폭풍쳐 우리는 간다
불타라 심장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백두의 령장따라 백두의 령장따라
최후승리 이룩하리

병사가 거리를 지날 때

2.병사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
사람들 정답게 인사를 하네
병사의 위훈이 깃든 이 거리
빛나는 금별로 새겨져있네
라랄랄라 라라라 랄랄라
빛나는 금별로 새겨져있네

3.병사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
행복의 노래는 높이 울리네
조국의 초소를 지켜선 병사
불타는 맹세를 안고 간다네
라랄랄라 라라라 랄랄라
불타는 맹세를 안고 간다네

병사가 받은 편지

2.기쁨속에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이 가슴을 울리는 어머니말씀
내가 심은 사과나무 열매맺을 때
영웅이 되라는 간절한 당부
라 고향의 그 부탁
병사들 가슴에 힘을 주었네

3.우리모두 다같이 영웅이 되여서
고향의 어머님께 기쁨드리자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영웅된 회답편지 보내드리자
라 기다리는 고향에
영웅된 회답편지 보내드리자

병사 그 부름 나는 사랑해

작사 공동진
작곡 백현수

2.내 이름 부를 때면 언제나 먼저 앞서는 부름
한가정 아들만이 아님을 다 말해준다네
아 어머니조국과 한피줄로 이어진
병사 병사 값높은 그 부름 나는 사랑해

3.병사란 자랑찬 그 부름 장군님 동지란 뜻
병사란 영예로운 그 부름 조국의 아들이란 뜻
아 이 심장 다 바쳐 영원히 빛내일
병사 병사 값높은 그 부름 나는 사랑해

병사는 고향을 안고사네

작사 김정훈
작곡 차광길

2.행군길에 구슬땀 젖은 병사들의 군복엔
어머니의 보풀진 편지 간직되여있다네
장군님전사로 군공을 떨치라 하신
아 그 당부 새겨안고 내 심장 불태우네

3.병사들의 고향이 모여 내 조국을 이루고
병사들의 총대가 있어 내 조국은 강하네
영원히 안겨살 장군님 그 품을 지켜
아 이 한몸 방패되여 전호에 서있으리

병사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2.칼벼랑 넘고 얼음장 헤칠 때
병사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행복에 넘친 인민의 모습인가
창조의 노래인가
아 나를 믿고 꽃피는 조국앞에
값높은 삶의 위훈을 새기리라
심장은 불탔다네

3.준엄한 순간에 한몸을 내댈 때
병사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소중히 안아 키워준 그 품인가
못 잊을 은덕인가
아 나의 운명 빛내준 당앞에
한목숨 바쳐 의리를 지키리라
심장은 불탔다네

병사는 바라보네

2.믿음어린 쌍안경 품고있으면
그 언제나 장군님 곁에 계신듯
비바람 세차도 눈보라쳐도
병사의 신념은 붉게 타네
(후렴)

3.천리만리 적진도 꿰뚫어보시는
장군님의 그 예지 비껴있다네
눈 대면 먼길이 밝게 트이고
통일의 축포가 어려오네
(후렴)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2.네벌김 매주고 떠날 때
푸른 잎 흔들던 농장벌
수령님은덕에 황금이 되여
탐스런 포기마다 속삭여주네
아 이 땅에 수령님 베풀어주신
그 사랑 못 잊어 설레인다네

3.금나락 설레는 들판에서
병사는 감격의 노래 부르네
이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만풍년 수령님은 안아오셨네
아 황금의 파도여 더욱 설레라
병사는 너를 지켜 충성다하리

병사는 조국을 심장으로 사랑하였네

2.시련많았던 고난의 날도
그 사랑 말로 하지 않았네
눈비 맞으며 언제 쌓으며
이 땅의 부강을 받들어왔네
아 병사는 어머니조국을
피땀으로 피땀으로 사랑하였네

3.행복한 날도 준엄한 날도
그 사랑 말로 하지 않으리
장군님품인 내 조국 위해
생명도 웃으며 바치여가리
아 병사는 어머니조국을
목숨으로 목숨으로 사랑하리라

병사는 언제나 군기와 함께

2.백두의 붉은기 넋이 깃들고
영웅들 피로써 승리로 날린
불패의 우리 사단 성스런 군기 승리로 휘날려가리
병사는 언제나 병사는 언제나
군기와 함께 있어라

3.판가리결전의 시각이 오면
군기에 다진 선서 지켜싸우리
내 만약 그 길에 쓰러진대도 군기는 감싸주리라
병사는 언제나 병사는 언제나
군기와 함께 있어라

통일된 내 조국 열병광장에 백승의 기상 떨치는
최고사령관기 우러르며 군기와 함께 나아가리

병사들마음속에 장군님만 계시네

2.가시며 주신 믿음 심장에 안고
병사들은 자나깨나 장군님 그리네
그 영상 우러르면 새힘이 솟아
천만대적 발밑에 굽어본다네
(후렴)

3.훈련의 쉴참에도 깊은 밤 꿈에도
그리움을 총대우에 안고 산다네
그 영상 우러르면 신심에 넘쳐
걸음걸음 승리로 위훈 떨치네
(후렴)

병사들아 시간을 맞추자

2.즐거운 야영도 여기서 떠났고
백두산답사길도 여기서 떠났어라
(후렴)

3.수도의 시간에 분초를 맞추며
선군시대 병사로 영원히 우리 살리
(후렴)

병사들아 영웅이 되자

2.병사들아 노래하자 그이 모신 자랑
사나운 불바다도 두려움없어라
(후렴)

3.병사들아 노래하자 그이 모신 행복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만 있네
(후렴)

병사들은 군기와 함께 위훈 떨친다

2.총을 잡고 군기앞에서 찍은 사진도
야전엽서편지와 함께 고향에 보냈네
대오에 휘날리는 자랑찬 군기여
위훈속의 금별들도 너와 함께 빛낸다

3.싸움의 날 영웅전사들 떨쳐온 군공도
붉게 타는 네 기폭속에 빛나고있어라
전승의 광장우에 휘날릴 군기여
장군님의 첫 사열도 너와 함께 받으리

병사들은 노래하네

작사 리지성
작곡 엄하진

2.흰김이 서린 취사장에서
국맛도 보아주시고
온돌바닥도 짚어보실 때
그 사랑에 목이 메였네
(후렴)

3.장군님 모신 우린 한가정
그 품에 우린 친형제
천만의 심장 그이를 지켜
영원한 성새되리라
(후렴)

병사들은 노래하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2.파도세찬 갑판에 올라 항로도 잡아주시고
노을비낀 하늘가 멀리 은빛날개 펼쳐주셨네
강철의 담력으로 병사들 키워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병사들 노래부르네

3.안겨주신 총검마다엔 멸적의 기상 넘치고
다녀가신 초소마다엔 승리의 만세 울리네
금별의 위훈으로 병사들 빛내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병사들 노래부르네

병사들은 대답했네

2.나의 병사 볼 때면 힘이 난다 하시는
장군님 우러러 병사들은 말씀드렸네
장군님건강은 우리의 승리
장군님안녕은 우리의 운명
병사들은 모두 간절히 말씀드렸네

3.군단포의 뢰성인들 이보다 더 높으랴
승리만을 떨칠 병사들의 힘찬 맹세
조국은 동무들 믿는다 하실 때
병사들 그 영광 받아안고서
장군님은 우리 조국이라 대답했네

병사들은 심장의 노래드리네

작사 최준경
작곡 한희세

2.진달래핀 철령우에도
잊지 못할 자욱이 있고
동서해의 섬초소에도
길이 전할 노래가 있네
(후렴)

3.하늘땅과 바다끝까지
천하제일 령장 모시여
전선천리 우렁찬 노래
승전가로 영원하리라
(후렴)

병사들은 행복하여라

2.하늘땅 바다초소 남기신 그 자욱
어느 령 고지우에 오르면 끝이 나랴
세월도 못 잊어 새겨안은 길
필승의 용맹을 불태워주네
(후렴)

3.오실 땐 눈비헤쳐 찾아오셨건만
가실 땐 따사론 해빛을 주시였네
장군님 그 사랑 영원한 조국
한목숨 다 바쳐 지켜가리라
(후렴)

병사들이 가는 길

2.고요한 달빛 흐르는 령길 넘어갈적에
저 멀리에 바라보이네 나서자란 고향집
부모형제 편히 쉬라고 험한 산발 오른다

3.종달새 나는 산야에 금나락도 설레고
집집마다 창문 열리며 손을 저어 바래네
선창수야 노래 불러라 산울림도 좋구나

4.강마다 솟은 발전소 밝은 불빛 따르고
급행렬차 기적소리도 발걸음을 떠미네
조국이여 그대를 지켜 세찬 강을 건는다

5.병사들 가는 앞길을 철의 장벽 막아도
장군님의 손길을 따라 뚫고 헤쳐가리라
강성대국승리를 향해 노래높이 간다네

병사들의 가슴에 남해가 설레이네

2.작전도에 그어주신 화살표 새겨안고
병사들은 장군님명령만 기다리네
(후렴)

3.장군님 주신 총을 억세게 틀어잡은
병사들의 눈앞에 축포가 오르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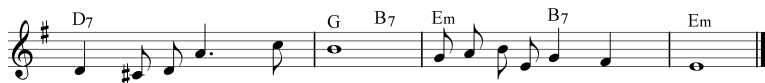
병사소식 전해다오

2.높다란 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아
어여쁜 목소리로 내 소식 전해다오
그러면 어머니 문열고 달려나와
병사가 보내는 문안인줄 아시리

3.어머니 그 눈가에 웃음을 함뿍 담고
우리 아들 잘있더냐 너에게 물으시리
그러면 새들아 이 소식 전해다오
장군님의 병사가 군공메달 받았다고

병사시절 나의 총번호

2.병사시절 나의 총번호 내 한생 귀중하여라
행복이 커갈수록 순간도 잊을수 없네
조국의 통일 위해 복수의 총탄들을 심장속에 재워주는
나의 총번호 나의 총번호 나의 총번호 영원한 나의 군호여

3.병사시절 나의 총번호 내 한생 귀중하여라
세대가 바뀌여도 순간도 잊을수 없네
결사의 정신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바쳐 지키여갈
나의 총번호 나의 총번호 나의 총번호 영원한 나의 군호여

병사시절 사진첩

2.병사시절 사진첩을 펼치여보면
전우들의 그 모습도 웃어반기네
눈비 오는 전호에서 밤을 지샐 때
우리 서로 함께 있어 춥지 않았네
(후렴)

3.병사시절 사진첩을 펼치여보면
우리 분대 우리 소대 모두가 있네
장군님의 명령 지켜 위훈 떨쳐온
병사시절 군인정신 피를 끓이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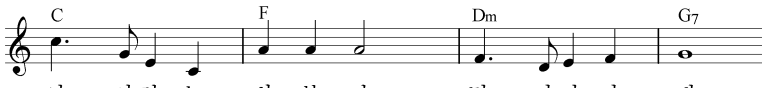
병사여 말하라

2.소나무 타던 언덕에 푸른 숲 설레이여도
피흘려 싸운 나날을 순간도 잊지 못하리
청춘을 함께 바쳐온 병사여 말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불속을 갔던가

3.세월은 흘러 강산에 행복은 꽃펴났어도
아직은 영원한 평화 깃들지 못하고있다
마치와 함께 총을 든 로병은 말한다
이 땅에 원쑤있는 한 이 땅에 원쑤있는 한
병사로 살리라

병사여 땀을 아끼지 말라

2.흘린 땀 많아야만 열매가 주렁지듯이
구슬땀 흘린만큼 군공도 커질수 있네
량심도 땀이 빛낸다네 명예도 땀이 빛낸다네
(후렴)

3.오늘의 훈련에서 많은 땀 흘린 병사가
래일의 싸움에서 더운 피 적게 흘리리
용맹도 땀이 키운다네 영웅도 땀이 키운다네
(후렴)

병사의 경례

2.전우들과 나누는 그 인사에도
위훈을 떨쳐갈 약속이 있네
장군님의 병사된 자랑이 있는
뜻깊은 거수경례 병사의 경례
(후렴)

3.성스러운 군기에 경례를 하며
병사가 다진 맹세 변함없다네
통일의 광장에 장군님 모실
승리의 거수경례 병사의 경례
(후렴)

병사의 군공메달

2.아버지군복에 빛나던 메달
내 얼마나 부러워 만져봤던가
그날에 다졌던 맹세가 오늘에 꽃폈나
병사여 그 모습 사진에 찍어보내게
(후렴)

3.훈장메달 가슴에 늘어갈 때에
조국은 철벽으로 다져진다네
어버이수령님 위하여 우리 당 위하여
래일도 위훈의 한길을 빛내가리라
(후렴)

병사의 념원은 남해바다가에

2.항일의 그날에 선렬들이 그리던 그 기슭
전화의 그날에 용사들이 달려간 그 기슭
아 총잡은 병사의 마음
꿈결에도 안아보네 남해바다가

3.통일된 내 조국 남해가에 수령님 모시고
한평생 로고를 풀어드릴 간절한 념원 불타네
아 총잡은 병사의 마음
기어이 가고가리 남해바다가

병사의 발자욱

2.책가방 메였던 어깨에 키보다 큰 총을 메였네
발목이 빠지는 전선길 탄피를 밟으며 걸었네
병사가 걸어온 발자욱 발자욱 발자욱 발자욱
어머니조국은 훈장과 메달로 빛내여주었네

3.젊었던 시절은 갔어도 추억은 심장에 남았네
공세운 그날의 이야기 후대들 가슴을 태우네
병사가 걸어온 발자욱 발자욱 발자욱 발자욱
승리한 어머니조국이 영원히 기억해준다네

병사의 사랑과 증오

2.아이들 능금볼을 쓸어줄 때면
기쁨에 설레던 병사의 가슴
원쑤를 앞에 둔 전호에 서면
피끓는 분노로 몸서리치네
그렇다 병사여 심장은 불타라
인민을 진정 사랑한다면
원쑤를 더욱 증오하라

3.병사의 사랑은 증오를 낳고
병사의 증오는 위훈을 낳네
사랑과 증오로 피를 끓일 때
조국의 수호자 영웅이 되리
그렇다 병사여 심장은 불타라
조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원쑤를 더욱 증오하라

병사의 순간

작사 문충렬
작곡 안정호
사색적으로 절절하게 (♩.=78)
mf Bm F#7 Bm
1.사 랑앞—에선 사 랑앞—에선 — 순
A7 D7 G
간 —도주저를 병사는몰—랐네 얼음장헤—치고
D C Em
아이를안아올때 — 병 사 — 는인 민의
F#7 Bm f G
안녕을생각했네 우 —리장 군—님 키 워—주—신
A7 D G Em
군 —대가아 니고—서 야 그누가그—들처 럼—
A7 D C#7 F#7 Bm
그누가그—들처 럼— 한목숨— 기꺼이내—대 랴

2.증오앞에선 증오앞에선
순간도 양보를 병사는 몰랐네
저 하늘 더럽힌 원쑤를 쏴떨굴제
병사는 조국의 존엄을 생각했네
우리 장군님 키워주신 군대가 아니고서야
그 누가 그들처럼 그 누가 그들처럼
멸적의 포화를 안기랴

3.병사의 순간 병사의 순간
그것은 조국과 잇닿아있어라
사랑과 증오의 그 순간 위하여
병사는 한생을 순간에 산다네
우리 장군님 키워주신 군대가 지켜섰기에
어머니 내 조국은 어머니 내 조국은
영원히 굳건하여라

병사의 생각

2.강 건너 산을 넘어 병사는 걸음마다
가슴깊이 생각을 하네 이 행군길 왜 걷는가
내 삶을 꽃펴준 고마운 내 조국이
한없이 귀중해 더욱 귀중해 땀흘리며 가고 또 가네

3.한목숨 두려우랴 성스런 이 길우에
병사는 생각을 하네 그 누가 이 길 막으랴
빛나는 생을 준 어머니 우리 당이
한없이 귀중해 더욱 귀중해 이 한몸 다 바쳐가리

병사의 차렷자세

2.상관을 만날 때도 차렷자세로
명령을 받을 때도 차렷자세로
보람찬 군무생활 빛내는 한길에
마음도 하나같이 다져준 그 자세
아 언제나 드팀없는 위훈의 자세라네

3.병사여 차렷자세 늦추지 말라
조국은 쉬엿구령 내리지 않았다
승리의 열병장에 장군님 모시고
영광의 사열 받을 충성의 그 자세
아 언제나 빛내여갈 혁명의 자세라네

병사의 첫 편지

작사 박경심
작곡 김운룡
따뜻하게 (♩=123)
1.초 소 의 한 밤은ㅡ 깊 어 가 는데 ㅡ
병 사 는 장군님께ㅡ 첫 편 지 썼네 ㅡ
그 ㅡ리 워 달리는 간 ㅡ절 한 마음에
우등사수ㅡ 그기쁨도ㅡ 모 두 담았 네
라 라라 라 라라라 라 라라 라 라라라
병 사 의 편지 첫편ㅡ 지 ㅡ

2.나어린 병사가 정히 쓴 편지
병사들 서로 보며 이야기했네
소박한 그 마음 정말 기특하지만
장군님이 신입병사 어이 아신담
라
병사의 편지 첫 편지

3.며칠후 병사는 꿈과도 같이
장군님 회답편지 받아안았네
천리전선 머나먼 길을 걷고계시는
장군님은 모르시는 병사가 없네
라
병사의 편지 첫 편지

병사의 행군길

2.이 길에 가마마차 국맛도 알았고
원쑤 칠 싸움군의 나래도 키운다
병사의 군화로 천만산 길들여갈 때
승리의 지름길 곧바로 열린다
병사의 행군길 승리의 행군길

3.눈비와 험한 산도 웃으며 헤친다
장벽도 뚫고나갈 용맹이 넘친다
백두의 행군길 저 멀리 남으로 잇고
장군님 우러러 보고를 드리리
병사의 행군길 영광의 행군길

병사의 꽃다발

작사 류동호
작곡 리종오

2.아버지장군님 모실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고지의 병사들 효성을 담아 사시절 피운 꽃
꽃다발 꽃다발 축원의 한마음
인민의 행복을 지켜낸 병사의 보고

3.일당백병사의 붉은 꽃다발 받는 그때가
우리의 장군님 세상 제일로 기쁘다 하셨네
꽃다발 꽃다발 축원의 한마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병사의 맹세

병사의 영예사진

작사 윤창도
작곡 리종오

2.훈련길에 바쳐진 나의 땀방울
이 한장의 사진속에 어려있어라
조국의 안녕 지킨 병사의 자랑
름름한 내 모습에 비끼여있네
(후렴)

3.병사생활나날에 기쁨 많아도
영예사진 찍은 기쁨 정말 크다네
총대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그 맹세 사진속에 불타고있네
(후렴)

병사의 일기

2.불굴의 그 신념이 산악과 맞선
포성없는 나날은 격전이였네
시련의 자욱마다 흘린 그 땀이
출렁이는 저수지에 고여있다네
(후렴)

3.이 땅에 일떠세운 기념비들은
조국땅에 새겨온 병사의 일기
장군님 사랑하는 병사들에겐
길이 전할 일기장이 많고많다네
(후렴)

병사와 처녀

2.풍년기쁨 안아올 한마음속에
우리의 농장벌 푸르러가요
그 병사 흥겨워 부르는 봄노래
나도 몰래 따라서 함께 부르네
아 병사와 처녀

3.혁신자로 꽃다발 받아안을 때
그 병사도 나란히 함께 받았네
농장벌에 꽃피는 군민의 한마음
만풍년열매로 무르익으리
아 병사와 처녀

병사와 한순간

작사 김정훈
작곡 한영철
정서있게
1. 순간 —은 — 짧은 —것 놓치 면잃 — 는
것 병사 —는 —한 생 —도 순간과바 — 꾸
네 — 어머 니 —우리— 당 — 안— 녕 을 —위하—
여 — 굳 건 히 — 지켜 — 가 네— 한 순
간 한순간 한순 간 — 여 — 순 간 이 — 짧다—
고 — 그 — 누 가 —말하— 랴 — 영 생 을 —낳는—
다 네— 한 순 간 한 순간 한순 간 —

2.방아쇠 당기면 탄알이 나가듯
순간이 부르면 병사는 나서네
위훈의 언덕에 달음쳐오르며
값높이 빛내이네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3.하루를 위하여 천날을 바치네
그 하루속에는 순간이 있다네
안기여 영생할 그 품이 있기에
심장도 바친다네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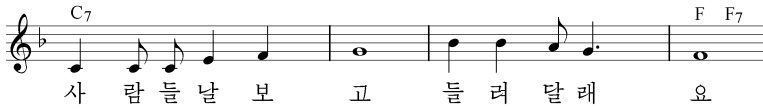
순간이 짧다고 그 누가 말하랴
영생을 낳는다네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보람찬 병사시절

2.행군길 다그치는 나날속에는
고향의 편지 받는 저녁도 있네
영웅이 되라 하신 어머님부탁
그 소원 이루고서 회답하리라
보람찬 병사시절 나는 사랑해

3.조국의 안녕 지켜 밤을 새우고
남먼저 해돋이를 우리는 맞네
군복은 눈비속에 색이 날아도
충성의 한마음은 더 붉게 피네
보람찬 병사시절 나는 사랑해

부러웁대요

작사 윤두근
작곡 우정희
명랑하고 궁지높이 (♩=170)
1.산 뜻 한 군 복 에 단 발 날 리 며
초 소 의 마 ㅡ 을 길 걸 어 가 는 데
장 군 님 다 녀 가 신 중 대 병 사 라
사 람 들 날 보 고 들 려 달 래 요
랄 랄 라 랄 랄 라 라 랄 라 라 랄 랄 라
크 나 큰 그 행 복 부 러 웁 대 요

2.노래춤 보여드린 기쁨 말할가
훈련을 보아주신 자랑 말할가
장군님 안겨주신 사랑 전하니
사람들 저마다 눈굽 적셔요
랄랄라 랄랄라라 랄라라 랄랄라
뜨거운 그 믿음 부러웁대요

3.떠날 때 가을에 다시 오마고
남기신 그 약속 들려줬더니
총잡은 당의 딸이 되고싶다며
사람들 내 손을 모두 잡아요
랄랄라 랄랄라라 랄라라 랄랄라
장군님병사가 부러웁대요

부르자 자랑찬 병사의 노래

2.장군님어깨우에 빛나는 그 별
우리도 군모에 있네
김정일장군님 모신 시대에
병사된 자랑과 영예 끝없네
(후렴)

3.장군님이름으로 빛나는 조국
총대로 지키는 병사
김정일장군님 모신 시대에
병사된 이 영광 떨쳐가리라
(후렴)

붉은 꽃을 드렸네

작사 신운호
작곡 리종오

2.포화를 헤친 영웅전사
그들의 앞길 축복하네
피흘려 싸운 위훈있어
오늘의 행복 꽃펴났네
아 오늘의 행복 꽃펴났네

3.준엄한 날엔 꽃 든 그 손에
총잡고 함께 싸워가리
영웅의 넋을 새겨가며
붉은 꽃 정히 드리였네
아 붉은 꽃 정히 드리였네

비행사의 노래

2.지켜본다 지켜본다 맑은 눈동자
사랑하는 인민들이 우릴 믿는다
목숨보다 귀중한 내 조국 위해
멸적의 억센 날개 펼치여가자
(후렴)

3.높이 날자 높이 날자 불새가 되여
장군님을 모신 조국 지키여가자
내 조국에 원쑤놈들 덤벼든다면
판가리결전에 한목숨 바치리
(후렴)

빛나는 영웅의 금별

2.금별 금별은 무엇으로 빛나고있는가
말해다오 영웅들의 뜨거운 심장이여
귀중한 한치 땅을 피로써 지켜가며
조국위해 위훈 떨친 그 마음어려 빛나네

3.금별 금별은 무엇으로 빛나고있는가
말해다오 영웅들의 뜨거운 심장이여
한생을 남모르게 조국의 기둥되여
당을 위해 바쳐가는 그 마음어려 빛나네

빛나라 다박솔초소여

2.백두산총대를 더 높이 드신
 령장의 철의 의지 비껴있는 곳
 조국의 운명 안고 가시는 길에
 언제나 못 잊으신 력사의 언덕
 (후렴)

3.수령님위업을 총대로 받든
 조선의 억센 기상 나래펼친 곳
 불패의 강국 떨칠 천만총검을
 이 땅에 일떠세운 불멸의 언덕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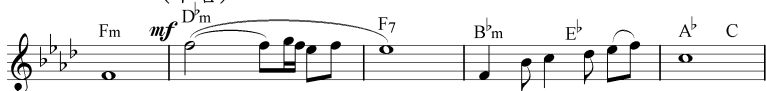
백두산군대 조선인민군

2.백두의 총대로 원쑤를 치고
백두의 우뢰로 축포 올렸다
유격대행진곡 이어부르며
조국을 지켜 백승 떨쳤다
(후렴)

3.펼치는 전법도 백두산전법
떨치는 기상도 백두산기상
총대의 그 전통 영원히 이어
태양의 위업 길이 받들리
(후렴)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

2.조국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철벽의 방선우에 서있는 총대
그 누가 이 땅에 불질한다면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
이 행성 어데 있건 용서가 없다

3.령장의 손탁에 굳게 쥐여져
조국의 강성부흥 펼치는 총대
그 누가 내 나라를 없애려 하면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
조선이 없다면 지구도 없다

뵈올수록 뵙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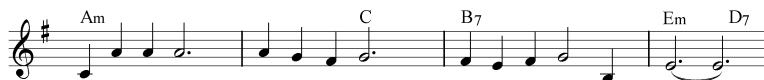
2.초소병실 온돌도 짚어보신 그 사랑
자나깨나 못 잊네
친어버이정을 준 자애로운 그 모습
또 뵈올 날 언젤가
(후렴)

3.아버지와 언제나 함께 있길 바라는
자식들의 이 소원
천번 다시 뵈워도 만번 다시 뵈워도
그끝을 몰라라
(후렴)

3대장군의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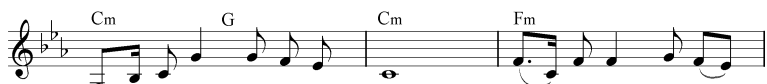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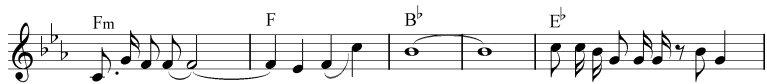
2.백두산시절의 설한풍을 헤치며
혈전의 언덕에 높이 드셨네
항일의 녀장군 번개를 치며
사령부를 보위한 총이여
(후렴)

3.백두의 령봉에서 넘겨받으셔
대대로 승리를 떨치시였네
김정일장군님 세기의 영웅
주체위업 지키는 총이여
(후렴)

상봉의 노래

2.불타는 전호가에 진달래 필 때
야전밥통 기울이며 축배를 들었지
어버이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그날 밤 우리들은 싸움길 떠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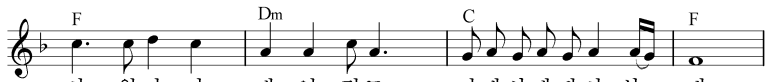
3.우리 머리 희여졌다 마음도 희랴
그날에도 오늘에도 우리는 전사들
김정일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한생의 머나먼 길 끝까지 가자

선군닐리리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빠르고 박력있게 (♩=138)
mf
Cm
1.전 호 가 의 ㅡ다 박 ㅡ 솔 ㅡ 도 닐 ㅡ리리 노래하
Fm B♭ E♭
고 전 선 길 의 ㅡ 진 달 ㅡ 래 ㅡ 도
Cm G Cm Fm
닐 ㅡ 리 리 춤 을 추 네 닐 ㅡ 리 리 선 군 ㅡ
Cm E♭
닐 ㅡ리 리 ㅡ 닐 ㅡ리 리 선 군 ㅡ 닐 ㅡ 리 리 ㅡ
f
Cm A♭ E♭
총 ㅡ 대 를 앞 세 우 고
Fm F B♭ E♭
걸 으신길 얼 마 ㅡ 랴 ㅡ 닐리리닐리리 좋다
E♭ Fm E♭ Fm G Cm
닐 리리닐 리리 좋 지 장 군님 선 군 닐 리 리

2.야전복의 자락소리 닐리리가락됐나
야전차의 동음소리 닐리리장단됐나
닐리리 선군닐리리 닐리리 선군닐리리
총대를 기둥으로 떨친 승리 얼마랴
닐리리 닐리리 좋다 닐리리 닐리리 좋지
장군님 선군닐리리

3.붉은기를 지키는 길 닐리리 이 길이야
사회주의 이기는 길 닐리리 이 길이야
닐리리 선군닐리리 닐리리 선군닐리리
총대를 중시하여 쌓은 업적 얼마랴
닐리리 닐리리 좋다 닐리리 닐리리 좋지
장군님 선군닐리리

선군승리 열두달

작사 김영철
작곡 황진영
밝고 랑만적으로 (♩=126)
1.일월 일월이라 설날 에는 다—박솔초소 찾- 고
이월 명절날도 병사 들과 함께계신우리장군- 님
삼월이라— 봄바람은— 그이안녕바랐 건— 만
사 월이 라 태 양 절도 지혜산에계시 셨— 네
(후렴)
아 열두 달 장군님의열— 두— 달
아 리랑—아리랑 스 리랑—스리랑 선 군 승리열두 달

2.5월 5월이라 푸른 하늘 억센 날개 펼쳐주고
6월 6월이라 푸른 바다 승리항로 열어주셨네
7월이라 전승의 날 빛내가실 뜻을 안고
8월이라 오성산에 총대바람 터치셨네
(후렴)

3.9월 9월이라 총대우에 공화국기 날리시고
10월 10월이라 총대우에 붉은 당기 빛내주셨네
11월의 찬바람에 야전복을 날리시며
12월의 마감날도 전선길을 걸으셨네
(후렴)

선군시대 녀성찬가

2.허리띠 졸라매던 그날에도
녀성들 흘리는 구슬땀 있어
대지엔 언제나 오곡이 설레고
일터엔 위훈의 노래 높았네
(후렴)

3.장군님 이끄시는 선군의 길에
그대들 부르는 노래가 있어
웃으며 가리라 오늘도 래일도
젊어질 내 조국의 모습과 함께
(후렴)

선군8경 노래하세

2.전선천리 걸으신 길에 철령의 철쭉꽃 붉게 타구요
찬서리를 가셔준 땅에 장자강불야성 황홀도 하네
(후렴)

3.선군승리 환희를 담아 울림폭포메아리 장쾌하구요
천지개벽 그 자랑 실려 한드레벌지평선 흐뭇도 하네
(후렴)

4.강성부흥 봄빛이 넘쳐 대홍단감자꽃바다 설레고
무릉도원 새 전설 꽃펴 범안리선경은 희한도 하네
(후렴)

선군혁명 천만리

2.수령님 총대로 여신 백두의 그 길 이어
난국도 총대로 헤쳐 승리를 떨쳐가네
(후렴)

3.**김일성**사회주의를 총대로 떠받들고
김정일강성대국을 총대로 빛내가네
(후렴)

선군혁명총진군가

2.고난을 두려워하면 열렸던 길도 막히고
시련을 맞받아가면 막혔던 길도 열린다
장군님걸음에 맞추어 애국의 자욱을 새기며
선군의 한길로 백승의 한길로 총진군 돌격 앞으로

3.총대가 앞에 선 이 길 막아설 강적이 없고
준마가 나래편 이 길 못 넘을 준령이 없다
장군님위업을 받들어 백두산대국을 빛내며
선군의 한길로 백승의 한길로 총진군 돌격 앞으로

선군혁명총진군 앞으로

2.총대로 만난을 헤치며 백배로 강대해졌다
위대한 우리 당 숨결로 창조의 불꽃 날린다
장군님 펼치신 설계도 안고서
선군혁명총진군 붉은기 날리며 앞으로

3.백두산강군이 굳건해 조선은 필승불패다
우리 땅 우리의 행성에 영광의 축포 올리리
장군님령도로 부강조국 빛내며
선군혁명총진군 붉은기 날리며 앞으로

선군은 우리의 생명

2.이 땅에 선군의 그 길이 있어 불구름 막았네
장군님 이으신 그 자욱마다 행복은 꽃폈네
선군 선군 선군은 우리의 생명
더 좋은 미래를 펼치여주는 조선의 생명

3.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끝까지 가리라
백두의 령장을 모신 내 조국 누리에 떨치리
선군 선군 선군은 우리의 생명
민족의 존엄을 길이 빛내줄 조선의 생명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

2.비온다 그으시고 눈온다 쉬였으랴
생신날 명절날도 전사들 찾았습니다
한몸도 가정도 선군에 모두 바치신
장군님 그 로고 가슴에 맺혀
우리모두 울었습니다

3.선군이 우리 민족 살리는 길이기에
해와 달 이으시며 이 길을 걸으십니다
내 나라 빛내며 선군길 가고가시는
장군님 그 위업 길이 받들며
변함없이 따르렵니다

선군의 그 위업 총대로 받들리

2.포연도 광풍도 총대로 불태워버린다
백두산강국도 총대에 받들려 솟는다
장군님부름따라 천만걸음 맞추며
선군의 그 위업 총대로 받들리

3.조국의 존엄도 총대의 힘으로 떨친다
광명한 미래도 총대의 빛발로 빛난다
장군님부름따라 백전백승 떨치며
선군의 그 위업 총대로 받들리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혁명 한길로

2.총대가 앞장서나가니 붉은기 더 높이 날린다
총대가 불구름 가시니 창조의 숲이 솟는다
장군님 이끄시는 조국이여 앞으로
선군의 기치를 따라 계속혁명 한길로

3.총대로 진군해가는 길 누구도 막지를 못한다
총대로 승리해가는 길 강국의 위용 떨친다
장군님 빛내시는 조국이여 앞으로
선군의 기치를 따라 계속혁명 한길로

선군의 길을 따라 행복이 오네

2.험한 령 넘나드신 전선길 지나
아득히 넓혀주신 새땅을 지나
선군의 한길을 따라 이 땅에 행복이 오네
승리의 언덕에 올라 오늘을 추억해보니
장군님 붉은기로 열어가신 선군의 길로
아 우리 행복이 오네 우리 행복이 오네

3.선군은 사회주의 필승의 기치
총대는 강성대국 큰집의 열쇠
선군의 한길을 따라 이 땅에 행복이 오네
승리의 언덕에 올라 찬란한 앞길을 보니
장군님 철의 신념 비껴있는 선군의 길로
아 우리 행복이 오네 우리 행복이 오네

손풍금수 왔네

작사 박원철
작곡 박한규
활기있게
1.왔 구나 우 리 손풍금수왔구나 왔 구나 우 리
손풍금수왔구나 수령님 보내주신 손풍금 ―메고서
장마철 험한길 여기까 지왔구나 장 마―비나
높 은 ―고개 그 ―에게무슨인연 있단말인가
노 래 ―없이 춤 도―없이 우리생활생각할수
있단말인가 와하하 암―그렇지 중대의 화선음악가
병사들 사랑하는 우리손풍금수야 어김없 이
어김 없 이 오리라고우리들은 믿 었다네 랄 랄 라

2.왔구나 우리 손풍금수 왔구나
왔구나 우리 손풍금수 왔구나
방직공처녀의 손길을 닮았나
넘기는 가락도 날름날름 잘하네
가까이 서지 말게 재빠른 손길만을 보지 말아라
저 주먹이 기여든 간첩을 세놈이나 쳐잡았다네
와하하 암 그렇지 중대의 화선음악가
병사들 사랑하는 우리 손풍금수야
손풍금만 손풍금만 잘 탄다고 생각했단 오산일세

3.얼씨구 우리 손풍금수 절씨구
얼씨구 우리 손풍금수 절씨구
내닫는 천리마 발굽소리 튕기네
피리도 장고도 저 가락에 맞추세
붉은기 우리 중대 진군가도 힘차게 불러보게나
숲속에서 산새들도 장단맞춰 노래를 불러준다네
와하하 암 그렇지 중대의 화선음악가
병사들 사랑하는 우리 손풍금수야
그 언제나 그 언제나 그대는 새 기쁨을 가져오네

랄랄라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2. 모두다 억세게 무장을 들고
성벽같이 서있는 로농적위대
발구름을 울리며 보고하노니
우리도 병사다 준비되였다
그 언제나 오고야말 준엄한 판가리싸움에
우리 함께 포화속을 뚫고 나가리라
(후렴)

3. 국방을 건설해 다진 힘으로
분렬의 장벽을 짓부셔가자
혁명의 총검을 더 높이 들고
멸적의 용맹을 떨쳐나가자
우리의 손으로 민족의 숙원을 풀고
삼천리에 통일만세 높이 울리리
(후렴)

순간과 한생

작사 류동호
작곡 황진영

2. 불뿜는 화점을 몸으로 막은
   영웅의 넋을 지니라
   터지는 수류탄 그러안은
   꽃나이청춘의 그 모습 간직하라
   (후렴)

3. 청춘도 생명도 값높이 바친
   전사의 참된 한생은
   조국과 후대들 기억속에
   영원한 충신의 모습으로 있네
   (후렴)

승리의 한길입니다

2.병사들과 나란히 사진도 찍으시며
검소한 야전식사 함께 드셨습니다
사랑의 전설을 남기시며
우리의 장군님 이어가시는
아 그 자욱은 승리의 한길입니다

3.전선천리 고지마다 무적의 기상 나래쳐
장군님을 옹위해갈 맹세로 불탔습니다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며
우리의 장군님 이어가시는
아 그 자욱은 승리의 한길입니다

승리의 열병식

2.금별이 빛나는 원수복에
 령장의 기상이 넘친다
  (후렴)

3.대오에 휘날린 공화국기
 통일의 광장에 날리리
  (후렴)

4.장군님령도는 백전백승
 조선은 뭉치여 나간다
  (후렴)

세 친구

2.싸움의 그날엔 한마음한뜻되여
침략자를 때려부실 용감한 세 친구
(후렴)

3.축포가 오르는 전승의 광장에서
승리의 보고 함께 드릴 영원한 세 친구
(후렴)

자랑많은 원군가정

2. 병사들을 찾는 날은 우리 집 명절
혈육의 정 안고서 전선길 걷네
애국의 그 마음 초소에 잇고
한집안식솔을 이루었네
(후렴)

3. 선군위업 받드는 성돌이 되여
병사들과 전호에 함께 서있네
장군님군대 위하는 마음
내 나라 종심은 끝이 없네
(후렴)

장군님 가시는 천리전선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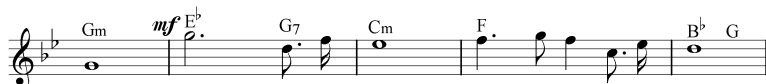
2.굽이굽이 천리전선길 가시는 장군님
높은 산 험한 령도 에도신적 없어라
(후렴)

3.굽이굽이 천리전선길 가시는 장군님
솟는 해를 맞으시며 끝없이 가시네
(후렴)

장군님 내 사진 보아주셨네

2.장군님 나의 사진 정겹게 보시며
영웅감 틀림없다 만족하셨네
고향집 어머니 이 소식 알면
감격에 목메여 눈물짓겠지
아 장군님 내 사진 보아주셨네

3.장군님 보아주신 그날의 그 사진
병사수첩 갈피속에 소중히 간직했네
그 사진 품고서 훈련길 가고
그 사진 품고서 싸움길 가리
아 장군님 내 사진 보아주셨네

장군님 다녀가신 초소의 밤

2.소박한 우리 노래 들어주시던
 그 영상 그리여보네
 그 품에 안겨 찍은 사진을 보며
 고향에 편지도 쓰네
 아 장군님 그 사랑 전하며
 행복에 설레는 밤이여 초소의 밤이여

3.조국에 위훈 떨친 영웅되라고
 뜨겁게 하신 그 말씀
 이밤이 깊을수록 다시 새기며
 충성의 마음 다지네
 아 장군님 위하여 싸우리
 맹세로 불타는 밤이여 초소의 밤이여

장군님 모셨던 그날을 못 잊어

2.황금빛쌍안경 보면 그 사랑 어려오고
은백색자동총 보면 그 믿음 안겨오네
아 뜨겁게 안겨주시던
어버이장군님 그 모습 못 잊어 노래하네

3.초소에 세월이 가도 그날은 남아있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그날을 안고사네
아 노래여 울리여가라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평양에 울려가라

장군님병사들이 네곁에 있다

2.향기넘친 꽃길에서 첫걸음 뗀 아가야
넓고넓은 대지로 큰걸음 떼여라
행군의 험한 산발 헤쳐넘으며
네 걸음 지키는 병사가 있다
장군님병사들이 네곁에 있다

3.밝게밝게 웃어라 귀여운 아가야
네 웃음 비끼여 이 강산이 환하게
희망찬 푸른 하늘 총대로 펼치며
네 웃음 지키는 병사가 있다
장군님병사들이 네곁에 있다

장군님 초소에 찾아오셨네

2.설날엔 다박솔 중대를 찾고
오늘은 바다길 이어오셨네
훈련도 보시며 기뻐하시고
생활도 따뜻이 보살피셨네
(후렴)

3.수령님 모셨던 그날과 같이
영광의 사진도 찍어주셨네
병사들 그 사랑 가슴에 안고
한목숨 바쳐갈 맹세 다졌네
(후렴)

장군님 안겨주신 총

2.장군님 안겨주신 우리의 총은
내 조국 지켜갈 계급의 무기
결사전의 그날 원쑤를 향해
복수의 명중탄 불을 뿜으리
총 총은 우리의 맹세 영원한 동지여
끝까지 억세게 총을 틀어잡으리

3.총대로 개척된 주체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수하리라
장군님의 명령 높이 받들어
통일의 그날도 안아오리라
총 총은 우리의 신념 영원한 동지여
끝까지 억세게 총을 틀어잡으리

장군님은 병사들을 축하하신다

2.광장엔 철갑의 대오 흐르고
붉은 매들 날을 때
그이는 일당백장병들에게
무적필승 용맹 주신다
(후렴)

3.선군의 자랑인 무적의 장군
만세높이 나갈 때
그이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백승의 길 밝혀주신다
(후렴)

장군님 위하여 복무함

2.총잡은 병사의 억센 신념은
장군님위해 있네
결사의 그 정신 가슴에 안고
붉은 총폭탄되리
(후렴)

3.총잡은 병사의 최후승리는
통일의 날에 있네
장군님 바라는 그날을 위해
한몸 다 바쳐가리
(후렴)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작사 리정술
작곡 안정호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게 (♩=125)
1.정 일 봉 이 솟 은ㅡ 땅 에 태ㅡ 여 난 청 춘 들
아 사랑 하 는 내 조 국 위 해 혁ㅡ 명 의 군 복 입
자 백ㅡ 두 의 선 렬ㅡ 들 피 로 써 찾 은ㅡ 땅 총
대 로 지 키 는 장 군 님 군 대 가 되 자 2.정 일
자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김 정 일 장 군 님 받 드 는 군 대 가 되 자

2.정일봉의 넋을 안고 자라난 청춘들아
　슬기로운 인민 위해 혁명의 군복 입자
　포연탄우 헤치며 우리 부모 지킨 땅
　총대로 지키는 장군님군대가 되자

3.정일봉의 기상 안고 총잡은 청춘들아
　군기앞에 다진 맹세 영원히 변치 말자
　누리에 빛나는 우리의 사회주의
　총대로 지키는 장군님군대가 되자

　라
　김정일장군님 받드는 군대가 되자

장군님의 정든 집

2.화목한 한식솔 아버지되여
초소의 살림도 보살피시네
장군님 병사들 노래 들을 땐
쌓이신 피로도 풀리신다네
(후렴)

3.이 세상 한끝에 가셨다가도
그리워 남먼저 찾아오는 집
장군님 언제나 높이 모시여
선군의 대가정 자랑 끝없네
(후렴)

장군이시여 우리를 사열하시라

작사 차영도
작곡 리종오

2.무적의 영웅대오 발걸음 높여라
철벽의 내 조국을 만방에 떨쳐가자
위대한 장군이시여 우리를 사열하시라
수령님 영생 위해 받들어총 앞으로

3.맹세는 붉게 탄다 주체의 성지에
통일의 열병식도 여기서 펼치리라
위대한 장군이시여 우리를 사열하시라
장군님 결사옹위 받들어총 앞으로

장령은 전사와 쌍보초 서네

2.아침엔 훈련길 함께 걷더니
이밤엔 보초도 함께 선다네
수령님 높은 뜻 받드는 마음
별들도 정답게 속삭여주네
아 장령과 전사
다 같은 수령님의 전사이라네

3.불무지보초도 몸소 서시며
수령님 베푸신 어버이사랑
장령은 그날의 그 뜻을 안고
초소에 상하일치 꽃피워가네
아 장령과 전사
영원히 충성의 길 함께 걸으리

저녁노을 불탈 때

2.어머니들 집으로 아이들을 부를 때
군가소리 울리며 우리 사단 나간다
행복의 락원을 지켜가는 길
방목공도 손저어 노을속에 반긴다

3.사단장도 병사도 더운 피를 끓이며
마음맞춰 발맞춰 우리 사단 나간다
진두엔 원수별 빛나는 기발
철의 대오 심장들 위훈에로 부른다

4.백두령장 그 전법 걸음마다 떨치며
총폭탄의 결사대 우리 사단 나간다
침략자 쳐부신 승리의 그날
붉게 타는 노을속에 축포성을 터치리

저 하늘 높이 날고 돌아온 저녁에

2.태양의 빛을 안고 날으던 하늘에
저녁별 밝게 솟아 위훈을 축복하네
창공을 높이 날며 부르고싶던 노래
땅우에 함께 내려 정답게 울려가네
루 정답게 울려가네

3.조국의 하늘초소 지켜온 우리 맘
그리운 장군님께 끝없이 달려가네
충성의 붉은 매들 또다시 나래 펼쳐
하늘의 결사대로 용맹을 떨쳐가리
루 용맹을 떨쳐가리

전사들은 영광을 드리네

작사 리종률
작곡 설태성

빠르고 환희적으로

2.그 사랑 우릴 안아 용맹을 주고
그 믿음 우릴 불러 위훈을 주네
(후렴)

3.령장의 손길따라 나가는 길에
승리의 노래만이 높이 울리리
(후렴)

전사의 발걸음

2.불타는 락동강 건너 싸워온 길 몇천리냐
군화자욱 새겨진 길 위훈도 찬란해라
(후렴)

3.하늘땅 바다 지키는 일당백 철의 대오
우리의 발구름에 조국은 억세여라
(후렴)

4.우리 힘 꺾을자 없고 우리 앞길 막을자 없네
대를 이어 주체위업 온 누리에 떨쳐가리
(후렴)

전선길 저 멀리

2.어버이품 그려 잠 못들며
야전차의 불빛 따라서네
장군님계신 곳은 전선길 저 멀리
은하수 다리 놓고 내 마음 달려가네

3.해가 솟을 때도 깊은 밤도
천만심장 달려가는 그곳
장군님계신 곳은 전선길 저 멀리
태양의 품을 찾아 내 마음 달려가네

전선길에 눈이 내리네

2.사계절 전선에서 보내시는
  불멸의 자욱우에 눈이 내리네
  장군님 맞으신 천만눈송이
  행복의 꽃이 되여 피여난다고
  속삭이며 내리네 눈이 내리네

3.간절한 소원 담아 아뢰이는가
  장군님 차창가에 눈이 내리네
  충효를 다 바쳐 우리 언제면
  그이의 로고를 가셔드릴가
  속삭이며 내리네 눈이 내리네

전선길에 대한 추억

2.그 어이 연기없는 마을을 두고
장군님 전선길에 계시였는지
고난의 령길에선 다 몰랐어도
락원의 길을 가며 알게 되였네
아 장군님의 전선길이여
아 우리 행복 지킨 길이여

3.그날의 공장들엔 쇠물이 끓고
풍요한 대지우엔 열매가 익네
불구름 가셔내고 꽃피운 락원
먼 후날 후대들도 알게 되리라
아 장군님의 전선길이여
아 길이 전할 전선길이여

전선길에 무지개 비꼈네

2.달리는 차창가에 곱게도 어렸구나
황홀한 하늘다리 초소에 놓았네
병사들 찾으시는 장군님 그 미소
뜨겁게 이어주며 무지개 비꼈네
(후렴)

3.선군의 날과 달을 끝없이 걸으시는
장군님 전선길에 무지개 비꼈네
천만년 꽃속에 모시고싶은
인민의 축원 담아 무지개 비꼈네
(후렴)

전선길에 심장을 대보라

작사 류동호
작곡 류우현
사색적으로 뜨겁게 (♩.=80)
1.애 국이란 무엇—인 가 그높은뜻 어려-오- 는
이 땅의 전선—길 에 — 심장 을 —대보— 라
조 국수호전 장에 붉은기날 리며 사 생결 단험 한령
헤 쳐넘 으신 장 군 님 — 그자— 욱 이 가 슴
에 뜨 겁게 새겨주 리 — 조 국 을 — 조 국
을 — 어 떻 게 사랑해야 하는가 를

2.그 누구나 조국앞에 지닌 의무 다하려면
이 땅의 전선길에 심장을 대보라
내 나라의 부강과 번영을 위하여
빨찌산의 행군길 이어가시는
장군님 그 헌신이 가슴에 뜨겁게 새겨주리
조국을 조국을 어떻게 빛내여야 하는가를

3.천리방선 굽이돌아 승리에로 뻗어있는
이 땅의 전선길에 심장을 대보라
애국으로 불타는 한생을 바치여
강성대국 이 땅에 꽃피우시는
장군님 그 위업이 가슴에 뜨겁게 새겨주리
조국을 조국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전선길엔 사랑의 사진도 많네

2.감을 든 녀전사도 철령병사도
그 품에 얼굴묻고 울고웃었네
영광의 그 사진 보고 또 보며
고향집부모도 눈시울젖네
(후렴)

3.장군님사진첩엔 병사들 있고
병사들 사진속엔 그이 계시네
선군의 대가정 한식솔모습
세월이 흘러도 길이 남으리
(후렴)

전선길의 눈보라

작사 황성하
작곡 한정부
절절하게 (♩=72)
mp Dm Gm A7 Dm
1.눈 보 라 눈보라 휘 몰아친 다
D7 Gm B♭ E A
하 늘 땅 흔들며 울 부짖는 다
mf Dm B♭ A7 D7 Gm
혈 전만리 길 에 날 리던눈보 라
C7 Dm A7 1. 2. Dm
전－선 길 천 리 에 휘－몰아친－ 다
3. Dm f B♭ A7 Gm A
라 아 ——— 김 정일장군 님
C7 Dm A7 Dm
승－리 를 안 아 온 전선길의눈보 라

2.조국의 운명도 이 길에 있고
인민의 행복도 이 길에 있어
빨찌산의 아들 야전복 날리며
사나운 눈보라 헤쳐가신다

3.눈보라 눈보라 휘몰아쳐도
뜨거운 그 자욱 지울수 없네
폭풍 헤쳐가는 헌신의 길우에
인민의 요람은 따뜻하여라

아 **김정일**장군님
승리를 안아온 전선길의 눈보라

전선길의 새벽

2.야전차의 차창엔 성에가 피는데
병실의 창문가엔 봄빛이 넘치네
가실 곳이 많으시여 장군님 바쁘시건만
전사들 꿈을 지켜 기다린 새벽이여

3.그 사랑이 물들어 노을이 불탈 때
병사들 목이 메여 그 품에 안겼네
내 조국의 새아침이 어떻게 밝아오는지
뜨겁게 새겨주는 못 잊을 새벽이여

전선길의 뻐꾹새

2.전선길 하늘가에 뻐꾹새 노래소리
그 사랑 못 잊어 뻐꾹 뻐꾹 뻐꾹
장군님 뿌려주신 애국의 푸른 씨앗
비바람 이겨내고 하늘에 아지폈네
뻐꾹 뻐꾹 뻑뻐꾹 푸른 숲 노래하네

3.전선길 하늘가에 뻐꾹새 노래소리
폭풍도 두렴없다 뻐꾹 뻐꾹 뻐꾹
장군님 지켜가는 선군의 내 나라
천만년 푸르싱싱 백화는 만발하리
뻐꾹 뻐꾹 뻑뻐꾹 기쁨을 노래하네

전선길의 아침노을

2.찾아주신 고장들과 만나신 모습들이
어버이의 마음속에 정답게 어려오네
인민의 행복 위해 낮과 밤 이으시며
장군님 맞으시는 전선길의 아침노을

3.한평생을 하루같이 걸으신 새벽길이
붉게 타는 노을속에 뜨겁게 비껴있네
끝없이 번영해갈 조국의 래일 안고
장군님 맞으시는 전선길의 아침노을

전선으로 떠나시는 마음

2.야전차의 차창가에 흐르는 별빛
보고싶은 병사들 눈빛이런가
전선으로 떠나시는 장군님의 그 마음
붉게 타는 그 사랑에 찬눈도 녹네

3.한생토록 단 하루의 안식도 없이
집을 떠나 눈길헤친 밤은 얼마랴
전선으로 떠나시는 장군님의 그 마음
해돋이의 아침 불러 병사들 안네

전선에서 만나자

2.오늘에 부르던 행복의 노래를 군용차에 싣고 가자
그날에 만나서 마라초 나눌 때 추억도 뜨거우리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3.조국이 맺어준 전우의 우정은 포연속에 더 불타리
화선의 탄피로 승리의 축배를 우리모두 함께 들리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전선에서 만나자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전선에서 만나자

전선에서 전선에로

2.전선에서 전선에로 고지우에 오르시여
섬멸전의 작전도에 새 지략 펼치시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내 조국의 운명을 지켜 폭풍을 부르신다

3.전선에서 전선에로 천만대군 이끄시고
사회주의최전선의 진두에 서계시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붉은기를 높이 날리며 백승을 떨치신다

전승탑광장에서 우리는 떠나왔네

2.꽃나이 육탄영웅 수기는 이 가슴에
피젖은 간호원의 당증은 이 심장에
영웅들의 그 정신을 숨결로 간직하고
전승탑광장에서 우리는 우리는 떠나왔어라

3.장군님 부른 길에 날려갈 공화국기
영웅의 그 손에서 넘겨받았어라
50년대 영웅들의 승리의 그 길 이어
전승탑광장에서 우리는 우리는 떠나왔어라

전승탑의 메아리

2.불모래 헤치며 전우를 묻던 락동강 물결소리
꽃나이 그 처녀 노래를 남긴 월미도 파도소리
이 가슴 울려주는 전승탑의 메아리 메아리
참다운 삶은 어데 있는가 나에게 말해주네

3.미래를 위하여 바쳐온 삶은 후대에 영생하고
조국을 위하여 걸어온 자욱 력사에 남는다네
이 가슴 울려주는 전승탑의 메아리 메아리
우리 장군님 옹위하라고 뜨겁게 부탁하네

전승의 기념탑에 새겨져있네

2.총창을 비껴든 저 군상속에
미더운 분대장의 모습도 있네
불타는 고지에서 전우가 넘겨준
공화국기발도 여기 날리네
(후렴)

3.세월은 멀리 흘러 어제날의 일
우리의 추억에만 남아있어라
하건만 젊었던 병사의 모습
우리 당은 빛내여주네
(후렴)

전승의 메아리

작사 정 렬
작곡 황진영
회고적으로 (♩=108)
Cm G7 Cm
1.내- 오 늘전승의 날 옛- 전 호에 서- 니 감-
Cm Fm B♭7 E♭
도 는안 개— 는 그날 의 포 연인 가 혈
A♭ E♭ G G7 Cm
전 의낮 과- 밤 이 흐 르 던 산- 정 에 지금
Fm A♭ D G (후렴)
은 —새소— 리 물소— 리 정 답구 나 아
A♭ 3 E♭ G G7 Cm
— 피 로써 지 킨 조 국 의 고- 지 여 귀중
Fm Gsus4 G7 Cm
한 어머 니 조 국이 여 —

2.총창을 비껴들고 생사를 겨루며
불뿜는 화점 향해 우리는 나갔네
목숨은 버리여도 물러설 땅은 없어
한몸이 육탄되여 불길로 타번졌네
(후렴)

3.값비싼 승리로 지켜낸 내 조국
영웅들과 더불어 영원불멸하리
선렬들 피가 스민 한줌의 흙을 쥐고
오늘은 후대들이 맹세를 다지네
(후렴)

젊은 병사 박동무 식당근무 나갔네

2.에참 이럴줄 알았으면 입대전에 나의 집에서
어머니의 료리솜씨 하나하나 배울걸 잘못하였네
가마에선 하얀 김만 푸락푸락 뿜고
나를 믿고 잠 잘 자는 전우들 모습
그 모습이 떠오를 때에 나는 결심하였네
라
어머니심정이면 못할게 없지

3.나는 해빛밝은 아침에 전우들을 맞이했네
식성 좋은 전우들이 후더분한 장국에 홀딱 반했네
코잔등엔 방울방울 구슬땀을 흘리면서
여기저기 곱배기도 요청하는데
특무장이 나를 불러 칭찬하겠지
라
대사: 《수령님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
소리높이 대답하였네

조국과 총대

2.인민의 세상 총대로 지키는 우린 장군님군대
백두의 령장 명령만 내리면 총은 불벼락치리
나가자 무적의 군대 조국을 위하여
총대는 조국 조국은 총대다
더 높이 추켜들리라

3.사회주의를 총대로 지키는 우린 장군님군대
백두의 령장 결심이 재워진 총은 승리만 안다
나가자 필승의 군대 조국을 위하여
총대는 조국 조국은 총대다
더 높이 추켜들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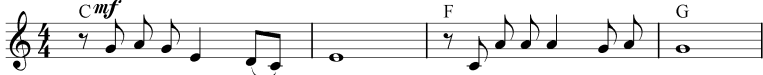
조국앞에 무엇을 남길것인가

2.어머니조국앞에 병사는 무엇을 남길것인가
전호가에 가슴대고 불타는 심장에 마음다졌네
한치 땅 품에 안고 영웅들 사수한 조국
우리 삶 그 품 지켜 그 품을 지켜 금별의 위훈 남기리

3.어머니조국앞에 병사는 무엇을 남길것인가
맹세로만 끝난다면 먼 후날 때늦은 후회가 되리
선렬들 넋을 안고 총폭탄 결사대되여
장군님 그 품 지켜 그 품을 지켜 금별의 위훈 남기리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

2.병사는 얼음장 헤치며 노래를 불렀네
충성의 불꽃 날리며 감탕길 헤쳐나갔네
아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갑문을 세운
병사들을 조국은 잊지 않으리

3.병사는 당중앙부름에 청춘을 빛냈네
바다에 위훈 남기고 또다시 행군해가네
아 한마음 당의 뜻 받들어 갑문을 세운
병사들을 조국은 잊지 않으리

조국은 병사를 사랑하네

2.병사의 마음은 신들메를 못 풀고
언제나 최후결전 그날에 산다네
당이 준 총대로 혁명을 지키는
병사여 조국은 너를 제일 사랑하네

3.병사의 한생은 어디에 있는가
어버이장군님 위한 그 길에 있다네
총창을 높이 들어 그 대답 웨치는
병사여 조국은 너를 제일 사랑하네

조국은 영원한 나의 사랑

작사 류동호
작곡 김학영
사색적으로
Cm
Fm
1.밀 영 의 밤 에 도 그 ㅡ 리 였 네 ———
G7
Cm
혈 전만 리헤치며그 리 였 네 ———
조국은사향가 노ㅡ래
Fm
G7
Cm
소 리 ———
두볼을비 비던 한줌의 흙
(후렴)
E♭
Fm
B♭7
심 ㅡ 장의 붉ㅡ은 피
뜨 ㅡ 겁게 스 민
E♭
G
Cm
Fm
땅
한 ㅡ 생을 다ㅡ바 쳐 ㅡ 그 ㅡ
A♭
D7
G
V C7
Fm
대 를 빛ㅡ내 리 ㅡ 조 국 은 ㅡ 조 국
G
D7
G
Cm
은 ㅡ 영 ㅡ 원 한 나의사 랑

2.포화에 불타도 사랑했네
재가루만 날려도 사랑했네
조국은 피로써 지킨 고지
땀흘려 가꿔온 고향산천
(후렴)

3.선렬들 그 넋을 새겨안고
대를 이어 이 땅을 꽃피우리
조국은 성스런 붉은 기발
영원히 지켜갈 사회주의
(후렴)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2.천연바위가 무너져앉고 지하수 폭포칠 때도
나를 따라 돌격 앞으로 웨치며 달려나갔네
말하라 병사의 심장 얼마나 불타는가를
어머니조국은 어머니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3.피끓는 청춘 이 땅에 바친 병사들 잊지 말자고
우리 장군님 조국청사에 금별로 빛내주셨네
말하라 병사의 위훈 얼마나 값높은가를
어머니조국은 어머니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아 병사의 위훈 얼마나 값높은가를
어머니조국은 어머니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조국의 바다 지켜 전대 앞으로

2.전대 앞으로 앞으로 전속으로 나간다
바다 길들인 해병들 억센 용맹 키웠다
주문진의 영웅들 넋이 위훈에로 우릴 부른다
조국의 바다 지켜 기세높이 기세높이
우리 전대는 노도쳐간다

3.전대 앞으로 앞으로 명중포성 울려라
적의 침략선 맞받아 불벼락쳐 부시리
장군님의 해병된 영예 군공으로 길이 빛내리
조국의 바다 지켜 승리향해 승리향해
우리 전대는 노도쳐간다

조국의 밤

2.저 멀리 고향하늘에도 별들은 빛나겠지
이밤도 나의 어머니 저 별을 보시겠지
그리운 어머니 이 아들을 믿어다오
금별의 위훈 세우고 그 품에 안기리

3.새벽이 오면 우리는 행군길 떠나가리
조국의 밤의 서정을 가슴에 안고가리
해와 별 찬란한 위대한 나의 조국
내 한생 총을 잡고서 이 땅을 지키리

조선인민군가

2.청춘도 생명도 모두다 바쳐
혁명에 충직한 승리의 대오
위대한 수령님이 령도하시는
당중앙을 목숨으로 지켜 싸운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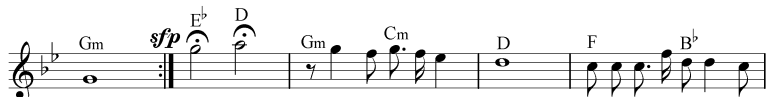
3.지나온 싸움의 발걸음마다
승리로 빛나는 불패의 대오
수령님이 부르시는 오직 한길로
조선의 혁명을 완수하리라
(후렴)

조선의 첫 총대가정

2.소중히 물려받은 유산도
귀중한 두자루 권총입니다
만대에 길이 빛날 가풍도
백두산총대의 정신입니다
(후렴)

3.그 정신 강성부흥조국의
영원한 주추돌 삼았습니다
그 유산 선군조선 앞길에
승리의 도약대되였습니다
(후렴)

중대생활 좋다

작사 김두일
작곡 설명순
좀 느리고 류창하게
mf Gm Dm Gm
1.사상혁명앞장 선 우ㅡ리 의중대 는 한 마 음한뜻-이라
D Gm D7
네 사격에서모두 다 백발백중하여 신문에도크게났다
(후렴)
Gm f E♭ D Gm Cm D
네 에 헤 중 대 생 활좋 아 헤이
F B♭ Gm Cm D
십 대준 수사항 을 걸음마 다빛내 는 우리중대좋ㅡ다ㅡ
Gm sfp E♭ D Gm Cm D F B♭
네 에 헤 중 대생활좋 아 수령님을위하 여
Gm Cm Dm Gm
목숨바 칠한마 음 우 리 중 대 짝 들 어 차 좋 다

2.엄격하고 살뜰한 맏형과 맏누이
병사들을 돌봐주는데
장령동지 내려와 한자리에 누워
귀속말도 들어준다네
(후렴)

3.중대부업 잘하니 먹는것도 푸짐해
우리모두 사기나는데
군사규률 째우고 군민관계 좋아
모두다 만점이라네
(후렴)

4.일당백의 장수들 체육경기 나서면
모두다 명수급이요
오락회를 열며는 하모니카합주
그야말로 멋이 있다네
(후렴)

에헤 중대생활 좋아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 바칠 한마음
우리 중대 꽉 들어차 좋다

직동령의 승리방아

작사 박원철
작곡 박왈빈
흥취나게
mf
Fm
1.직 동령 마 ㅡ루 에
D♭
E♭7
보 름달 솟 ㅡ 아–나 니
Fm
B♭m
원 호미 찧기 ㅡ 에 ㅡ 도
신 바람
A♭
절 ㅡ 로–나 ㅡ 네
웃 마을
Fm4
C7
할 머니는 입 쌀이 ㅡ 요
샘 물집
E♭
맏 ㅡ 며느린 찹 쌀이 요 ㅡ
이 한밤
Cm7
이 ㅡ 새 기전 에
매 봉에 보 내야
f
지 에 헤

2.미국놈 폭격속에 씨뿌린 기장쌀이
때맞춰 탐스럽게 이삭마다 여물었네
알알이 금쌀같이 다루세요
알뜰히 살뜰히 키질해요
이 낟알에 원쑤 잡는 새힘이 솟는다오
에헤 인민군포소리 들려온다
에헤용 데헤용 손맞춰 발맞춰
어서나 찧어내세

3.승리에로 부르시는 수령님손길따라
인민군용사들이 고지에서 싸워간다
지름길 골라서 어서 가세
할머니 그 짐을랑 인주세요
원쑤치는 매봉에 어서나 달려가세
에헤 승리의 그날을 앞당기며
앞서거라 뒤서거라 싸우는 매봉에
어서나 달려가세

제일 가까워

2.감나무중대의 녀병사들도
장군님과 자기들이 제일 가깝대
사랑의 약속도 지켜주시고
딸의 소식 고향집에 전해주셨네
아 아버지와 딸처럼
장군님과 병사들이 제일 가까워

3.하늘땅바다의 병사들모두
장군님과 자기들이 제일 가깝대
언제나 전호가에 함께 계시는
그이 품에 우리들이 제일 행복해
아 아버지와 자식처럼
장군님과 병사들이 제일 가까워

참 좋은 시절

2.한가마 야전밥도 함께 나누며
동지의 참된 우정 우린 알았네
조국이 귀중함을 심장에 새겨가는
병사시절 좋은 시절 위훈의 시절
랄랄랄 랄랄랄 병사시절 참 좋은 시절

3.장군님 사랑하는 병사로 사는
이보다 더 큰 영예 우린 몰라라
선군의 총검높이 조국을 지켜가는
병사시절 좋은 시절 값높은 시절
랄랄랄 랄랄랄 병사시절 참 좋은 시절

처녀병사들의 노래

2.공원속에 꽃물결이 흐를 때
훈련길을 떠나고
요람속에 자장가가 울릴 때
전호가에 서있네
(후렴)

3.총을 메고 단발머리 날리며
조국위해 빛낸 삶
먼 후날에 어머니가 되여도
자랑으로 꽃피리
(후렴)

처녀의 손수건

작사 김기호
작곡 박진국

2.병사는 훈련의 쉴참 손수건을 받아안았네
중대가 서로 모여앉아 기쁨의 웃음꽃 피웠네
이 손수건 보낸 처녀 소문난 혁신자일가
그 모습 안겨오는 처녀의 손수건 손수건

3.처녀와 초소의 병사 얼굴은 서로 몰라도
뜨겁게 오고가는 마음 그 누가 어이 모르랴
원쑤치는 싸움길에 손수건 피에 젖어도
승리의 기폭처럼 병사는 높이 날리리

철령아리랑

2.달리는 차에 앉아 줴기밥 손에 든채
쪽잠에 드시였던 굽이는 어드메냐
아리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철령아 들려다오
장군님 선군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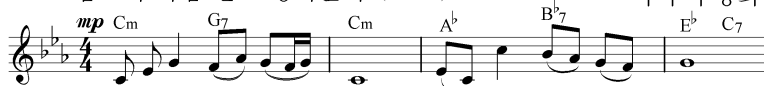
3.그날에 너를 넘은 그 길이 없었다면
이 땅에 강성부흥 오늘이 있을소냐
아리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철령아 전해다오
장군님 내 조국을 어떻게 지켰는지

철령아 전해다오

작사 최준경
작곡 리종오

2.수령님사랑 깃든 령길우에서
장군님 젊은 병사 축복하셨네
어버이 한품속에 이어진 그 사랑 뜨거워
강산도 목이 메여 감격에 설레네 설레네
아 철령아 그 사랑 전해다오

3.령마다 어려있는 위대한 그 전설
산정의 기념비에 높이 새겼네
전사들 그 언제나 조국의 방선을 지키며
장군님 다시 뵈올 그날을 그리네 그리네
아 철령아 영원히 전해다오

철령의 진달래

2.꽃속에 이 강산 바라보시며
장군님 진달래 곱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 안고서 만발한 꽃송이
향기를 드렸네 축원을 드렸네

3.내 나라 지키며 넘으신 령길
그 길에 맞으신 눈비는 얼마이더냐
꽃피는 이 봄엔 쉬여가시라
따르며 불랐네 목메여 불랐네

첫 축복은 병사들에게

2.눈덮인 고지의 전호가에서
설날을 함께 보낸 우리 장군님
병사들 노래도 들어주시며
뜻깊은 설명절 축하하셨네
(후렴)

3.장군님 모시고 맞이한 설날
어버이축복속에 시작한 새해
병사들 뜨거운 그 사랑 안고
위훈의 날과 달 이어가리라
(후렴)

초도의 붉은 파도여

작사 신운호
작곡 김건일

2.세찬 풍랑 헤가르며 날바다를 건너오실 때
장군님안녕 바라던 마음 오늘도 노을로 피네
파도여 초도의 붉은 파도여 노래해다오
철의 의지로 사선을 헤친 빛나는 선군의 길을

3.모진 광풍 쳐몰아낸 장군님의 필승의 신념
선군의 승리 기폭과 같이 항로에 붉게 어렸네
파도여 초도의 붉은 파도여 전하여다오
우리 장군님 조국을 지킨 위대한 그 업적을

초병들은 나를 보고 꾀꼴새래요

2.전우들의 건강 위한 그 마음 담아
아리랑을 건드러지게 불러주었더니
아니 글쎄 그 동무가 날 보고 하는 말이
그 목청은 영낙없는 꾀꼴새라나요
아 나를 보고 초병들은
나를 보고 초병들은 꾀꼴새래요

3.이동치료 끝마치고 시내가에서
빨래하는 전우들의 일손 도왔더니
처녀동무 그 목청은 꾀꼴새 못지 않지만
그보다도 마음씨는 더 아름답대요
아 그보다도 마음씨는
그보다도 마음씨는 더 아름답대요

초소는 병사의 조국

2.전호가 눈비속에 병사의 삶을 알고
땀흘린 훈련속에 위훈의 나래펴네
령장의 손길아래 용사로 자라나는 곳
초소는 나의 조국 병사의 조국이여라

3.청춘의 참된 삶을 여기서 꽃피우고
혁명의 수뇌부를 여기서 수호하리
소중한 모든것을 총대로 지켜가는 곳
초소는 나의 조국 병사의 조국이여라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2.당중앙창가로 잇닿은 마음
경애하는 그이 손길 가까이 있고
중대가 걸어온 전투기록장엔
수령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네
(후렴)

3.**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 안겨
우리들은 영웅으로 자라난 병사
그이의 영원한 혁명전사로
충성을 다 바쳐 싸워가리라
(후렴)

초소에 장군님 오셨네

2.장군님 모시고 나란히 찍은 사진
우리 중대병실에 환하게 모셨네
쌍안경 자동보총 가슴에 안고
일당백 위훈의 꿈 키워간다네
(후렴)

3.눈이 오면 추울세라 비오면 젖을세라
병사들을 위한 사랑 끝은 어딘가
그 품에 모두다 총폭탄되여
내 조국 지켜갈 맹세 불타네
(후렴)

초소의 손풍금소리

작사 리영철
작곡 정원철
정답게 (♩=135)
1. 초소에울 리네 손풍금소리 다박솔언 덕넘 어
장군님모 시고 부르던노래 끝없이울 려가 네
라 라 라 ㅡ라 라라 병 사 ㅡ의 노 래
그 날 의 ㅡ기쁨안고 정 답게 울 리 네
그 날을ㅡ 못 잊어ㅡ 손 풍금 울 리 네
라 라 라 ㅡ라 라라 병 사 ㅡ의 노 래
평 양 의 ㅡ하늘타고 손 풍금 울 리 네
병 사들ㅡ 마음담아ㅡ 끝 없 이 울 려 가 네

2.초소에 울리네 손풍금소리 오늘도 그날처럼
장군님 그 품에 다시 안긴듯 행복은 넘쳐나네
라 병사의 노래
그 품을 그리며 즐겁게 울리네
그 품을 못 잊어 손풍금 울리네

3.초소에 울리네 손풍금소리 평양의 하늘 타고
장군님 또다시 모시고싶은 병사의 마음 담아
라 병사의 노래
그날을 기다리며 손풍금 울리네
병사들 마음 담아 끝없이 울리네

라 병사의 노래
평양의 하늘 타고 손풍금 울리네
병사들 마음 담아 끝없이 울려가네

초소의 새벽길

2.초병은 장군님 우러러 간절히 말씀을 드렸네
여기는 최전연이라고 말씀을 드리였네
아 나의 병사들이 기다린다 하시며
아 우리의 장군님 방선으로 떠나시네

3.우리의 장군님 계시여 병사들 언제나 이기고
우리의 장군님 계시여 조선은 영원하리
아 찬란한 조선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아 우리의 장군님 방선으로 떠나시네

초소의 세쌍둥이

작사 정룡순
작곡 정춘일
밝고 명랑하게 (♩=138)
1.빨 간 령 장 세쌍 둥이ㅡ 초 소 에오ㅡ던 날
거 수 경 례 나 란히ㅡ 셋 이 서 했 네
오 늘은우등사수 펄 펄 나 는 싸 움 군 가ㅡ슴에꽂송이도
세쌍 둥이라네 초 소 의 자 랑 스런
(후렴)
세 쌍 둥 이 라 라라라라라
라 라라ㅡ 라 라라라라라 라 라라ㅡ
초 소 의 자 랑 스런 세 쌍둥 이

2.내 조국의 축복속에 자라난 세쌍둥이
따사론 그 품에 함께 안겼네
장군님 뜨겁게 잡아주신 손목에
사랑의 금시계도 세쌍둥이라네
초소의 자랑스런 세쌍둥이
(후렴)

3.사랑의 은장도 찼던 허리에
총폭탄 차고서 전호에 섰네
통일의 그날엔 승리의 꽃다발
장군님께 먼저 드릴 세쌍둥이라네
초소의 자랑스런 세쌍둥이
(후렴)

초소의 까치소리

2.이른새벽 까치가 울면 귀한분 찾아온다지
  초소길에 까치가 우니 우리 맘 달려갑니다
  그날처럼 우리 장군님 또 오신다 전해주려마
  병사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아 까치소리

3.간절하게 기다려지는 희소식 그이 소식뿐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귀한분 오직 그이뿐
  그날처럼 우리 장군님 또 오시길 바라는 마음
  병사들의 소원 담아 울리는 아 까치소리

총대는 혁명의 계주봉

2.총대없이 걷는다면 우리 존엄 지킬수 없고
총대잡고 간다면 폭풍길도 두렵지 않네
내 조국의 운명이 실리여있는
총대는 혁명의 총대는 혁명의 계주봉이여라

3.백두령장 승리의 보검으로 안겨주신 총
지원의 그 뜻 안고 대를 이어 더 높이 들리
선군의 천만리에 그 위업 떨칠
총대는 혁명의 총대는 혁명의 계주봉이여라

총대와 청춘

작사 리명근
작곡 류우현

2.청춘의 사랑과 불타는 열정을
나는야 보람찬 훈련길에 바쳐가네
강성대국의 행복 가꾸며
수호자의 값높은 삶을 빛내는
총대에 총대에 청춘의 자랑이 있네

3.청춘과 총대를 하나로 이어놓고
나는야 혁명의 일선에 산다네
백두의 선렬들 그 넋을 안고
끝까지 장군님 결사옹위할
총대에 총대에 청춘의 위훈이 있네

총잡은 아들아 너는 아느냐

2.총잡은 아들아 너는 아느냐
　백두의 총 안겨주신 장군님믿음
　얼마나 값높은 혁명의 표창인지
　천만금 주고서도 살수 없는 크나큰 영예
　병사의 빛나는 총대에 어려있어라

3.총잡은 아들아 너는 아느냐
　초소로 떠나던 날 바래워주던
　고향집어머니 당부가 무엇인지
　끝없는 사랑속에 믿음속에 자라난 병사
　장군님 받드는 위훈의 별이 되거라

총은 변하지 않네

2.불바다 헤치며 우리 가도 두렵지 않다네
가렬한 최후의 순간에도 총은 배반을 모른다네
(후렴)

3.백두의 선렬들 넋이 어린 귀중한 이 총은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 같이해갈 동지라네
(후렴)

충성의 대답소리 《알았습니다》

2.병사의 대답은 비록 짧아도
명령을 수행하긴 헐치 않다네
높은 산 벼랑길도 넘어야 하고
포연탄우 불속도 헤쳐야 하네
그렇다 그 어떤 고난도 헤쳐
충성의 길로 위훈의 길로 우리는 가리
(후렴)

3.우리의 대답은 평범하여도
충성의 맹세가 담겨있다네
우리는 이 한마디 대답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바칠수 있네
그렇다 일당백초소마다에
높이 울리는 충성의 대답 영원하리라
(후렴)

친근한 우리 최고사령관

2.백발백중 사격술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명사수들 사진 찍어 고향에도 보내주셨네
(후렴)

3.가마차의 국맛 보며 초소살림 보살펴주고
젊은 병사 귀속말도 웃으시며 들어주셨네
(후렴)

4.불길만리 헤친대도 그이 계셔 용기백배해
생사고락 같이하며 그이따라 승리하리라
(후렴)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2.이 기발 추켜들면 용맹은 하늘에 솟고
이 기발 날려가면 대적도 무릎 꿇는다
진두에 높이 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
부강한 내 조국 지켜 위훈을 빛내가리라

3.결전의 나날에는 만세의 함성 터치며
승리한 고지마다 힘차게 휘날려가리
진두에 높이 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
장군님위업을 지켜 백승을 떨쳐가리라

최고사령관기 올려

2.장군님 우러러 용맹을 얻고
한마음 따라서 위훈 새기네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길에
해병의 영예 빛나리
(후렴)

3.사나운 바다에 몸을 던져도
이 기발밑에서 영생하리라
통일의 그날도 장군님 모셔
영광의 보고 드리리
(후렴)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하함

2.그 영상 뵈오면 용맹이 솟고
그 손길 따르면 위훈 빛나네
전사들 심장의 목소리 합쳐
축원의 인사 드리네
(후렴)

3.장군님안녕을 위함이라면
불속도 웃으며 뛰여들리라
전사들 결전의 총검 드높이
축원의 인사 드리네
(후렴)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2.우리는 장군님안녕을 지켜
성새와 방패로 철진을 폈다
이 길에 인민의 행복이 있어
결사의 맹세로 피를 끓인다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3.장군님 지켜선 신념의 노래
하늘 땅 바다에 메아리친다
이 길에 조국의 부강이 있어
총폭탄용사들 위훈 떨친다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최전연길 백마흔아홉굽이

2.전화의 날 영웅고지 자랑많은 산
험한 산 줄기줄기 백마흔아홉굽이
아 새로 생긴 산중의 호수가에도
장군님 찾으신 그 자욱 뜨겁네

3.이 나라 동서천리 최전연길에
사랑으로 끝이 없는 백마흔아홉굽이
아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속에는
장군님 찾으신 그 자욱 뜨겁네

통신병의 노래

2.머나먼 싸움터 그 어디에나
전파로 날으는 우리의 마음
자랑찬 승리의 노래가 되여
하늘 땅 바다에 울리여가네
아 우리는 영예론 통신병
전투의 위훈 빛내여주네

3.진격의 명령을 전하여주며
남해의 끝까지 우리 가리라
수령님과 당의 혈맥이 되여
통일의 첫 통화 보장하리라
아 한마음 해와 별 우러러
통일의 첫 통화 기쁨드리리

평양을 위하여 병사가 있다

2.언 땅에 배를 대도 뜨거운 이 가슴
평양은 나의 심장 이 세상 오직 하나
(후렴)

3.병사가 지켜선 평양이 있기에
정의와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라
(후렴)

평양이여 그대 지켜 나는 싸우리

2.전호가의 밤에도 훈련길에도
가슴속엔 대동강물 흘러넘치네
꿈결에도 걸어보는 열병식광장
승리의 위훈 안고 살아간다네
(후렴)

3.불비속을 헤쳐넘어 그대 아들로
결사전에 한몸 바쳐 그대 아들로
마음속엔 언제나 최고사령부
그 불빛 지키여 나는 싸우리
(후렴)

포병의 노래

2.내 조국 건드리는 도발자들은
이 세상 어디 있건 불벼락치리
우리 포사거리는 한계가 없고
우리 마음 겨눈 곳엔 명중탄이다
(후렴)

3.슬기와 용감성은 포병의 자랑
백두의 령장을 우린 닮았다
우리의 포성은 승리의 우뢰
전쟁없는 세계에 봄을 펼치리
(후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2.사령부 지켜 싸운 그 넋을 이어
피끓는 우리 가슴 성새로 뭉쳤다
조선의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여 결사옹위하리라

3.장군님 사수하여 목숨 바침은
전사의 제일가는 영광이여라
백승을 펼치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여 결사옹위하리라

훈련도 전투다

2.강물과 진펄이 두려울소냐
험한 산 벼랑길 주저할소냐
준엄한 결전의 하루를 위해
천백날 땀흘려 총창 벼린다
(후렴)

3.전군이 일당백 싸움군되여
승리의 지름길 다져나간다
훈련장 흔드는 만세소리는
통일의 광장에 울려퍼지리
(후렴)

훈련장의 쉴참은 좋다

작사 김몽금
작곡 공정렬
좀 빠르고 흥겹게
mf Gm
1.훈 련 장 의 쉴 참 이—라 북 통 을 때-려 라 —
Cm
Gm
높은고지세개쯤은 성차 지않 는-다-던 우리분대영 철동-무
B♭
점차 느리게
Cm
어 깨 춤 도 좋—지 만 중 대 장 의 꼽 새 춤 은
Dm7 처음속도로 Gm
f B♭
Gm
더욱 더좋-구나 얼 씨—구나 — 북통 을때—려-라
Dm7
Cm
Gm
절 씨 -구나 — 더덩 실울-려-라 훈련장-의쉴참 은
Cm
Dm7
Gm
흥 겨 워-서 좋 — 다 흥겨워서좋 구— 나

2.쌍피리도 불어라 스리살짝 넘겨라
마주보며 웃는 얼굴 신통히도 형제같은
소대장과 김동무네 주고받는 노래엔
혈육의 깊은 사랑 오가는 정 넘치누나
얼씨구나 북통을 때려라
절씨구나 스리살짝 넘겨라
화목한 우리 중대 들끓어서 좋다
들끓어서 좋구나

3.투사들이 부르던 혁명가도 불러라
산판이 들썩하게 이런 노래 높아야
가슴마다 무적의 용맹이 나래치고
승냥이 미국놈들 벌벌 떤다네
얼씨구나 북통을 때려라
절씨구나 훈련도 잘하지만
춤과 노래 많아서 우리 중대 좋다
우리 중대 좋구나

훈련 또 훈련

작사 윤두근
작곡 설명순
행진조로
1.아 침노 을 불 타 는 산 과들 을 지 나
발 걸음 도 힘 차 게 훈 련길 가 네 이 땅우에총 소리
울 리지 않 아 도 우 리마 음 결전 의 그 날에사네 헤이
아 —병 사 여 —노 래 높 이 부 르— 며 아 —마음
도 —발 걸 음 도 맞 춰 가 자 수 령 –님 과 당 중 앙 의
부 름 따 라 훈 련 또 —훈 — 련

2.훈련장에 돌격의 함성이 높을 때
우릴 믿고 조국은 전진한다네
전투에서 승리도 금별의 위훈도
반복훈련 그 길에 이어져있네 헤이
아 병사여 노래높이 부르며
아 일당백용맹 떨쳐나가자
수령님과 당중앙의 부름따라 훈련 또 훈련

3.백두에서 시작한 우리의 훈련을
그 누구도 졸업한 전사는 없네
통일의 날 축포성 울리기 전에는
우리 훈련 끝났다 말하지 말라 헤이
아 병사여 노래높이 부르며
아 승리의 그날 향해 나가자
수령님과 당중앙의 부름따라 훈련 또 훈련

해군들 군항으로 돌아온다

작사 류동호
작곡 정춘일

2.갈매기도 길잃은 날바다에서
마음속에 안고산 조국의 향기
한목숨 바쳐 지켜낸 땅에
승리한 해병들 인사드리네
(후렴)

3.살아서는 이 땅을 못 밟는대도
우리 삶을 영생으로 빛내줄 품아
어뢰가 되여 터진다 해도
조국을 위하여 이 한몸 바치리
(후렴)

해당화의 마음

2.은정어린 자욱우에 붉게 피는 해당화야
격정으로 쏟치던 눈물 네 뿌리에 스며있지
(후렴)

3.이른봄철 진달래의 그 빛갈이 붉게 물들어
해풍에도 시들지 않네 열풍에도 지지 않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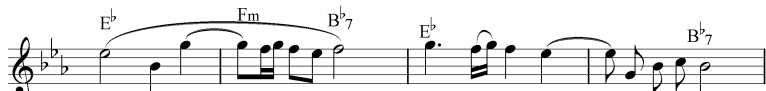
해병은 기타를 타네

2.바다길우에 안개가 자욱히 내릴 때
그이는 나의 타륜을 잡아주셨네
노래부르자 기타여 노래부르자 기타여
위훈의 항로 열어준 손길 정다운 그 손길

3.격랑을 넘어 저 바다 한끝에 간대도
정다운 그이 사랑은 내곁에 있으리
노래부르자 기타여 노래부르자 기타여
친근한 그이 남해에 모실 해병의 이 마음

행군길에 꽃피는 관병의 사랑

2.첫 행군에 목이 마른 우리 막내 마셔야지
앞장에서 땀흘리는 우리 맏형 들어야죠
정답게 마주보며 다정히 속삭이며
높은 산도 넘어가요 깊은 강도 건너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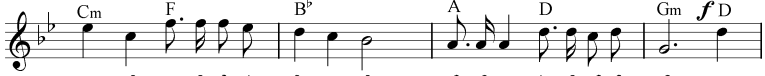
3.가는 사랑 오는 사랑 나눌수록 깊어지니
천리길은 멀다 해도 걸을수록 힘이 솟네
오늘은 우리 서로 물 한모금 나누지만
싸움의 그날에는 피도 함께 나누리라

아 당을 위한 한길에서
관병일치 꽃피우며 충성의 길 함께 가리

휘날려라 군기여

작사 정은옥
작곡 오승학

기백있게 (♩=116)

2.조국이 걸어온 포화천리에
언제나 앞에 날렸다
병사들 위훈 떨쳐온 곳에
군기는 함께 있었다
(후렴)

3.우리의 군기 높이 든 땅은
영원한 철의 요새다
선군의 조국 세상에 떨쳐
기발은 더욱 빛난다
(후렴)

끝까지 충실하리라

2.우린 장군님이 날리는 불발을 모르는 총탄
오직 그이 명령 받들어 금별의 위훈 떨친다
(후렴)

3.우린 장군님이 펼쳐든 영원한 태양의 군기
오직 그이 위업 빛내며 승리의 한길만 간다
(후렴)

땅과 병사

2.한줌의 흙 품고 투사들 싸웠네
전사들 한치 땅 피로 지켰네
아 나의 조국을 다신 잃지 말자고
청춘도 바쳐 생명도 바쳐 혈전을 벌렸어라

3.선렬들 피흘려 지켜온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조국이여라
아 값높이 찾아 값높이 지킨 땅
그 넋을 따라 이 한몸 바쳐 끝까지 지키리라

땅크병의 노래

2.강철의 쇠발굽은 폭풍의 날개 포신은 강타의 주먹
천지를 진감하는 동음소리는 우리의 승리의 함성
우리는 용감한 조선의 땅크병
최후의 돌격선엔 우리 서있다 언제나 땅크가 서있다

3.침략의 무리에는 징벌의 벼락 조국엔 미더운 성새
목표를 향해서는 에돌줄 몰라 모조리 씹고 뻗으리
우리는 용감한 조선의 땅크병
승리의 기발은 우리 꽂는다 언제나 땅크가 꽂는다

뜨거운 전선길

2.사시절 찬눈비를 다 맞으시며
병사들 찾아가신 전선길 전선길
오늘도 그 길에 계시는 모습
눈시울 적시며 우러르네
(후렴)

3.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끝없이 이으시는 전선길 전선길
희망찬 조국의 날과 달들이
그 자욱 따라서 밝아오네
(후렴)

아니나다를가

2.마을일을 제집처럼 도와준 군대
유치원의 놀이터도 꾸려주었지
우리 군대 애민의 정 누가 모를가
천막가의 우등불은 가슴끓이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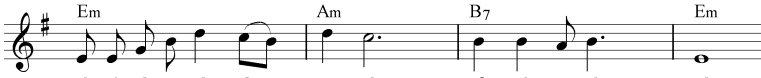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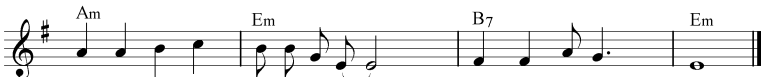
3.장군님이 사랑하는 인민의 군대
이 땅우의 불소나기 막아준다네
깊어가는 군민의 정 누가 다 줄가
동구길의 저 멀리에 군가 울리네
(후렴)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2.장군님 전선길 헤치시며
비바람 모두 가려주니
사랑의 우리 집 창가에는
언제나 해빛 따뜻해라
(후렴)

3.집집에 행복이 꽃필수록
장군님로고 잊지 말자
그 품에 운명을 맡겼기에
우리의 삶은 영원하리
(후렴)

아버지의 병사수첩

작사 김종학
작곡 박진국
소박하게 (♩=136)
1.군 복 입 은 이 아 ― 들 을 바 래 ―워 주 며
아 버 지 는 병 사 ― 수 첩 안 겨 주 었 네
포 연 에 그 슬 려 도 ― 빛 나 는 수 ― 첩
내 조 국 이 귀 중 함 을 ― 속 삭 여 주 네
아 ――― 아 ―――
내 조 국 이 귀 중 함 을 ― 속 삭 여 주 네

2.총포탄이 우박치는 전호가에서
굳은 맹세 적어넣은 소중한 수첩
지난날 영웅들의 그 모습으로
병사생활 빛내라고 나를 이끄네
아 병사생활 빛내라고 나를 이끄네

3.원쑤들을 쳐부시던 전투위훈이
또박또박 새겨있는 병사의 수첩
장군님전사답게 아버지처럼
대를 이어 이 수첩에 위훈 새기리
아 대를 이어 이 수첩에 위훈 새기리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

2.처녀들 그에게 물었다네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
총각은 얼굴만 붉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네
기타여 울려라 군가여 울려라
총각은 얼굴만 붉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네

3.처녀들 이듬해 전선길에서 그 총각 다시 만났네
달리는 전차우에서 총각은 싱긋 웃었네

4.병사된 어제날 그 총각은 처녀에게 대답했다네
나도 이젠 당당한 근위사단출신이라오
기타여 울려라 군가여 울려라
청춘의 자랑은 조국보위 그 길에 있네

청춘의 자랑은 조국보위 그 길에 있네

어머니에게

2.이 아들의 배낭속에 빨간 앵두 넣어주며
동구길을 따라서던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사시는 집 소중한 고향 지켜
오늘은 이 아들이 한밤을 지샙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3.이밤에도 전호에 선 아들을 믿으시고
마음편히 잠드시라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사시는 집 귀중한 조국 지켜
장군님병사답게 위훈 떨쳐가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어버이사랑을 노래부르자

2.수령님 넓고도 자애론 품속은
우리를 용사로 키우는 요람
높은 산 바다는 비길 곳 있어도
어버이사랑은 비길 곳 없네
(후렴)

3.손풍금소리여 더 높이 울려라
수령께 충성을 노래부르자
이 노래 부르며 나가는 앞길에
통일의 새날은 밝아온다네
(후렴)

어서 가요 먼저 가요

작사 리종률
작곡 박왈빈
좀 빠르게
1.사 격 에 서 우 를맞ㅡ은 포 차ㅡ들 달 리 다ㅡ
가 풍년낟 알 듬 뿍실ㅡ은 뜨 락 뜰과 마ㅡ주섰
네 갈 길 은 바 쁘 지만 서 로 길 을
내 여 주 며 어 서 가 요 먼 저 가 요
인 사 도 정ㅡ다 워 라 아 —— 수 령 ㅡ님
이 끄 시 는 한 길 에 서 오 고 가 는
군 민 의 정 깊 어 만 간 다 ㅡ 네 ㅡ

2.명사수의 자랑 떨친 초병들 앞서야지
가을걷이 일손 바쁜 처녀들이 앞서야지
사랑과 존경 담아 군민의 정 나누면서
어서 가요 먼저 가요 말씨도 살뜰해라

3.높이 쌓은 벼낟가리 병사에게 새힘 주고
명사수의 꽃송이는 처녀에게 기쁨주네
초소로 농장으로 갈길은 다르지만
어서 가요 먼저 가요 마음은 함께 가네

아 수령님 이끄시는 한길에서
오고가는 군민의 정 깊어만 간다네

언제나 규정대로

2.군무생활 참답게 빛내이자면
군사규정 법처럼 지켜야 하네
강철같은 규률을 다지여주는
규정은 생활의 지침이라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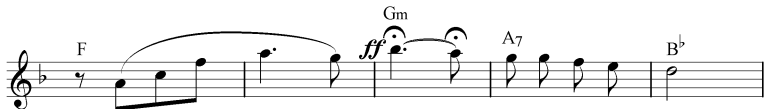
3.규정속에 병사의 영예도 있고
규정속에 승리의 열쇠도 있네
총쥔 병사 참된 삶 빛내여주는
규정은 위훈의 안내자라네
(후렴)

언제나 규정속에 나는 살리

2.병영 떠나 홀로 가도 대오에 서서 가듯
활개치며 씩씩하게 발걸음 높여가네
름름한 나 하나 모습에서
인민은 일당백병사를 보네
아 언제나 규정속에 나는 살리

3.군무생활 걸음걸음 규정속에 빛낼 때
총쥔 병사 내 앞길에 위훈도 마중오네
미더운 나 하나 모습에서
조국은 전군의 위용을 보네
아 언제나 규정속에 나는 살리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작사 리범수
작곡 설명순
좀 느리게 흠모의 정을 담아
1. 눈 내 린 산 정 전 호 가 에 서 평 ㅡ 양
하 늘 우 러 러 서 면 동 해 에 솟 는 아 침 해 처
럼 수 령 님 영 상 안 기 여 오 네
아 ―――― 아 침 해 처 럼 수 령 님
영 상 안 기 여 오 네 지 켜 가 리 라
아 ―――― 아 ㅡ 수 령 님 위 해
한 목 숨 바 쳐 싸 워 가 리 라 ㅡ

2.초소를 지켜 홀로 선 밤도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험준한 산발 오를 때에도
이 몸을 안아 힘을 주시네
아 우리 어버이
그 품에 안겨 우리 자라네

3.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수령님사랑 잊을수 없고
물속을 가도 불속을 가도
충성의 마음 변할수 없네
아 오직 한마음
수령님안녕 지켜가리라

아 수령님위해
한목숨 바쳐 싸워가리라

열가지 중대관리준칙의 노래

2.명령지휘체계따라 군인들을
움직여나감이 셋째이구요
언제나 전투동원태세를
철저히 갖춰감이 넷째이라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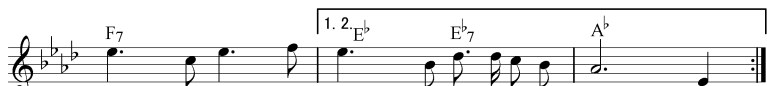
3.사건사고 막기 위한 대책을
모든 일에 앞세움이 다섯째구요
이신작칙 모범으로 군인들을
이끌어나감이 여섯째라네
(후렴)

4.자력갱생원칙에서 중대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감이 일곱째구요
군민일치 전통적미풍을
꽃피워나감이 여덟째라네
(후렴)

5.군인들을 중대와 소대단위로
움직여나감이 아홉째구요
언제나 중대장과 정치지도원
합심하여 일해감이 열째라네
(후렴)

열망하던 때는 왔어라

2.앞의 전우 쓰러지면 넘기여받아
다음전우 날려가던 공화국기발
준엄한 그날의 시각이 오면
이 손에 들고서 앞장서가리
(후렴)

3.지뢰원과 철조망이 막아나서면
이 병사는 육탄되여 돌파해가리
아버지세대들 다하지 못한
통일의 성업을 이룩하리라
(후렴)

영광 빛나라 불패의 조선인민군

2.그대는 조국의 성새 일당백수호자여라
그대는 인민의 충복 행복의 창조자여라
그 언제나 당을 따라 일심단결로
승리의 자욱을 새기여가네
아 영광 빛나라 불패의 조선인민군

3.영광의 군기 날리며 나가는 영웅의 대오
필승의 신념을 안고 나가는 충신의 대오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해가며
조국보위 한길로 힘차게 가네
아 영광 빛나라 불패의 조선인민군

영광 빛나라 불패의 조선인민군

영웅과 이야기하네

2.위훈의 그 순간에 서있는 그대
영웅과 나는 날마다 이야기하네
전우위해 목숨바친 그날의 전호가는
아 그대가 이어놓은 교실이였지

3.참다운 삶의 길 가르쳐주는
영웅과 나는 끝없이 이야기하네
장군님 받드는 총폭탄동창생으로
아 너와 나 영원히 함께 있으리

영웅된 아들소식 꿈같이 전해왔네

2.어서 자라 영웅되라 정답게 타이르며
손잡고 이끌어준 어머니 아니던가
그 아들이 조국위해 큰 공을 세웠으니
어머니 어머니 너무 좋아 춤추네

3.나라위해 충성하는 아들을 두고싶던
가슴속 소원을 그 누가 꽃펴줬나
영웅으로 키워주신 수령님 우러러
어머니 어머니 큰절을 드리네

영웅병사와 고향처녀들

2.학교시절 우리 함께 공부할 땐 2중창도 불렀건만
  웬일인지 이 가슴은 두근두근 얼굴만 붉어지네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영웅병사 축하하여
  씩씩하고 기백있는 혁명군가 불러야지

3.공세우고 돌아오는 병사만이 고향앞에 떳떳해라
  우리들도 혁신의 위훈 세워 군인정신 떨쳐야지
  그 생각 좋아 그 생각 좋아 올해농사 본때있게
  알뜰살뜰 잘 지어서 우리 군대 도와야지

  라 미더워라 영웅병사

영웅의 그 나이 열여덟이였네

2.화선의 하늘가에 어머니 그렸고
고향의 그 처녀도 꿈에 보았어라
승리의 그날 믿어 소박한 시도 썼네
영웅의 그 나이 열여덟이였네

3.청춘은 하나여도 조국은 더 귀중해
병사는 화점향해 달리며 웨쳤네
조국과 수령 위해 동무들 앞으로
영웅의 그 위훈 영원히 빛나리라

4.고향의 언덕 넘어 영웅은 못 왔어도
위훈의 별이 되여 빛을 뿌리네
오늘도 우릴 불러 앞장선 젊은 병사
영웅의 그 나이 열여덟이였네

영웅의 열다섯발자욱

2.그가 새긴 발자욱은 여기서 끊겼어도
그가 남긴 메아리는 끝없이 울려오네
조국을 위하여 수령을 위하여 병사는 한몸 바치였네
승리를 앞당겨 달려간 발자욱 열다섯발자욱
아 오늘도 그 자욱이 위훈의 길로 부르네

3.하나밖에 없는 조국 더없이 귀중하기에
둘도 없는 청춘의 몸 육탄이 되였다네
조국을 위하여 수령을 위하여 병사는 한몸 바치였네
영생의 언덕에 빛나는 발자욱 열다섯발자욱
아 장군님따라 천만리 그 자욱 이어가리라

영원한 심장의 노래

2.전후의 난국을 헤치던 길에 그 신념 더욱 불탔네
수령님 계시는 당중앙 지켜 강철로 높이 든 구호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그날에 울리던 심장의 노래 이 땅에 메아리쳤네

3.충성의 그 신념 오늘도 이어 결사의 정신 떨치네
장군님 계시는 수뇌부 지켜 총대로 높이 든 구호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천만이 울리는 심장의 노래 누리에 메아리치네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2.포연속을 뚫고온 성스런 군기앞에도
위훈 떨친 돌격대 그 기발앞에도 7련대
백두의 혈통을 억세게 이어주며
오늘도 7련대 우리앞에 있어라

3.주체위업 받드는 일심단결의 대오에
백전백승 힘을 준 혁명의 영원한 7련대
내 나라 내 조국 부강을 지켜가며
오늘도 7련대 우리앞에 있어라

오늘의 7련대되리라

2.고난의 행군길 피로 헤쳐
사령부 지켜낸 7련대
성새와 방패된 그 정신
이 길에 떨친다
(후렴)

3.장군님안녕을 받든 길에
이 한몸 육탄이 되리라
수령을 보위한 그 정신
영원히 빛내리
(후렴)

오직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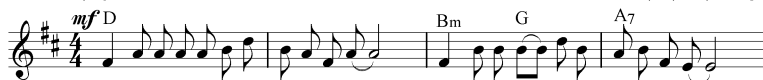
2.은혜론 장군님 품은 내 삶의 귀중한 조국
그 어떤 천지풍파도 그 품과 가를수 없다
오직 조국을 위하여 오직 인민을 위하여
불뿜는 화점을 향해 이 한몸 육탄이 되리

3.조국의 안녕 지킬 때 내 나라 번영해가고
내 조국 존엄 지킬 때 태양의 위업 빛나리
오직 조국을 위하여 오직 인민을 위하여
천만의 총폭탄대오 최후의 승리 떨치리

용감한 사나이일세

2.주도기로 푸르른 하늘을 주름잡고
야간비행훈련도 목표마다 명중일세
장군님이 키워주신 담력으로
양키날개 혼쌀내준 비행사라네
와하하 그 친구 와하하 그 친구
용감한 사나이일세

3.초저공도 고공도 문제가 없다네
항공모함 온대도 보기 좋게 답새기리
내 조국을 건드리려 달려만 들면
침략자들 머리우에 불벼락 주리
와하하 그 친구 와하하 그 친구
용감한 사나이일세

우리 군대 우리 인민

2.방선에 우리 군대 없다면
전야의 이삭들은 불에 타리
후방에 우리 인민 없다면
전선의 탄약상자 비게 되리
(후렴)

3.병사가 이 땅우에 흘린 땀은
인민의 행복속에 스며있네
인민이 전선길에 바친 정은
병사의 군공속에 새겨있네
(후렴)

우리 군대 인민군대

2.우릉와릉 불도젤로 산을 밀어내는
저 운전수 그 군대일가
용접면을 내려쓰고 불꽃 날려가는
저 사람이 그 군대일가
만나보는 전사마다 인사말도 친절하고
바라보는 전사마다 일솜씨도 착실하구나

3.하늘가에 은빛지붕 둥실 얹어가는
  저 연공이 그 군대로다
  쩍 벌어진 앞가슴에 인상좋은 얼굴
  틀림없는 그 군대로다
  인민들의 아들인데 내가 어찌 몰라보랴
  장한 아들 찾았으니 어깨춤만 절로 나네

4.인민들의 생명재산 지켜가는 길엔
  이름없는 영웅이구요
  내 나라의 번영 위해 건설장에 서면
  자랑높은 혁신자로다
  인민들을 위함이면 한목숨 다 바치는
  이런 군대 세상에 없네 우리 군대 인민군대

우리는 그이의 병사

2.조국을 지키는 영웅되라고
크나큰 담력을 안겨주셨네
(후렴)

3.장군님명령을 받드는 길에
병사의 이 영예 빛내가리라
(후렴)

우리는 당의 군대

2.백두의 기상 넘치는
장군님 우렁찬 축하인사
그 신념 가슴에 지닌
우리는 일당백 혁명의 군대
(후렴)

3.장군님 명령 내리면
원쑤를 무찔러 나가리라
조국통일을 앞당길
우리는 일당백 인민의 군대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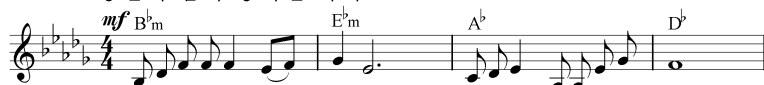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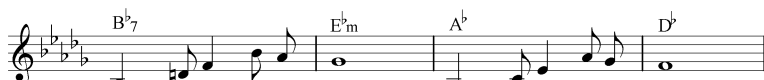
만세 만세 우리의 최고사령관

우리는 병사시절에 배웠네

2.참된 삶이 무엇인지 피로써 적고 간
영웅들의 그 모습을 심장에 새기네
빛나는 그 삶은 우리 교과서
위훈의 한길에 답을 맞추리
장군님의 병사로 인생의 참뜻을 배웠네

3.용감성의 학교에서 배워온 동창들
우린 모두 결사옹위 총폭탄되였네
조국의 통일은 병사의 숙제
필승의 총대로 기어이 풀리
장군님의 병사로 승리의 졸업증 받으리

우리는 처녀병사

작사 최준경
작곡 전민철

2.저 하늘의 흰구름도 둥실 떠 우릴 따르고
오고가는 사람들도 손저어 축복해주네
녀병사영예로 꽃피는 이 기쁨
빨간 령장아 네 말 좀 하려마
라랄라라라라 랄라라 네 말 좀 하려마

3.천리방선 굳건해야 인민의 행복 영원해
처녀시절 꿈많아도 복무의 길을 택했네
장군님딸되여 내 조국 지키며
값높은 위훈을 별처럼 빛내리
라랄라라라라 랄라라 별처럼 빛내리

우리는 초소의 친형제

2.어제날 병사였던 아버지 편지에도
네 동무 잘있느냐 소식도 묻는다네
좋은 날 벗보다 불속도 함께 갈
화선의 전우가 귀하다네
우리는 친형제 혁명의 전우라네

3.한마음 조국위해 생사를 함께 하는
병사의 참된 우정 탄알도 막아주리
세월이 흘러서 옛 전우 되여도
오늘에 맺은 정 변치 말자
우리는 친형제 영원한 전우라네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작사 림호권
작곡 김윤봉

2.내 조국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다
우리들은 일당백의 용감한 초병이다
영광 영광의 길에 원쑤치던 승리의 총검
오늘은 수백만 어깨에 빛난다 어깨에 빛난다

3.내 조국 남녘땅에 원쑤가 있는 한
우리들은 총창을 더 굳게 잡으리라
영광 영광의 길에 자랑떨친 혁명의 무장
오늘은 수백만 어깨에 빛난다 어깨에 빛난다

우리는 왜 총을 멨는가

2.동무여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이 총을 멨는가
말하라 꿈많은 시절 그 어이 병사가 됐는가
꽃피는 락원도 누리는 행복도
우리 쥔 총으로 지키고있어
한생을 병사로 총과 운명 같이하리라

3.동무여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이 총을 멨는가
말하라 꿈많은 시절 그 어이 병사가 됐는가
성스런 백두의 행군길 이어
통일의 광장에 수령님 모실
그날을 위하여 혁명의 총 놓지 않으리

우리 대오 나갈 때

2.천만의 대적도 단숨에 짓뭉갤 발걸음소리
조국이 건설로 부르면 창조의 기적 떨친다
우리 대오 나갈 때 황금대지 설레이고
철의 기지 저 하늘에 노을이 불탄다

3.우리는 장군님 키워준 백두산강군의 병사
모두다 총폭탄용사로 위훈의 금별 빛낸다
우리 대오 나갈 때 불구름도 가셔지고
강성대국 밝은 앞길 더 넓게 열린다

우리를 보라

2.위협의 구름 휘몰아와도
우리들은 언제나 끄떡없으리
나의 부모여 나의 형제여
념려하지 마시라
(후렴)

3.자유를 위해 평화를 위해
우리들은 총을 멘 정의의 군대
침략의 무리 덤벼든다면
단매에 쳐부시리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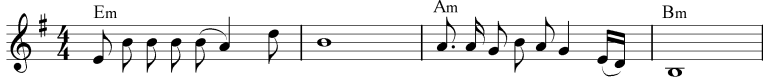
우리 마을 우리 초소

작사 김정훈
작곡 엄하진
보통속도로 속삭이듯이
mp
1.시 내 가 마을에 는 내어머니사시는— 듯
병 사 는 부른다 네 저마을은우리마— 을
mf
산 마 루 초소 에는 내아들이있—는— 듯
인—민 은 부른다 네 저초소는우리초— 소 아
f
우리마 을 아 우리초 소
우리마 을 우리초 소
mp

2.알뜰히 함께 가꾼 황금나락 설레이면
제 고향 풍년인듯 병사들이 기뻐하네
명사수꽃을 달고 훈련에서 돌아올 땐
제 자식 자랑인듯 온 마을이 반겨주네
아 우리 마을 아 우리 초소

3.군대가 있는 곳엔 우리 인민 함께 있고
인민이 있는 곳엔 우리 군대 함께 있네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 품속에서
한마음 꽃피우며 정을 담아 부른다네
아 우리 마을 아 우리 초소

우리 마을 우리 초소

우리 분대 고향자랑

작사 김 철
작곡 전민철
흥취나게 (♩=128)
1.휴 식참에시— 작 된 우리분대고향 자— 랑
펼칠수록기쁨 가 득 우 리마음흥이 로— 세
분대장은량강도의 감자풍년자 랑이요 막냉이는함경도의
소금—자랑끝없어 얼 씨구좋다 — 절 씨구좋아
— 우 리-분대고 향 — 자랑— 합 쳐보 니
흥해—가 — 는 내 조국이되였 구— 나

2.노래처럼 이어지는 우리 분대 고향자랑
들을수록 웃음가득 우리 마음 즐거워라
1보총수 강원도의 규격포전 그려가고
2보총수 자강도의 발전소를 자랑해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우리 분대 고향자랑
합쳐보니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일세

3.언제가도 끝이 없을 우리 분대 고향자랑
가슴 뭉클 뜨거움에 눈굽이 젖어오네
장군님령도아래 천지개벽 이 아닌가
온 세상에 으뜸가는 선군의 내 나라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우리 마음 불타올라
사회주의부강조국 목숨바쳐 지켜가리

우리 사단 행군해간다

2.젊은 병사도 사단장도 땀에 젖어 행군해간다
영웅전사들 떨쳐온 위훈 걸음마다 빛낸다
(후렴)

3.갈길 멀어도 눈비와도 쉬임없이 행군해간다
천만대적도 쳐부실 용맹 하늘끝에 닿았다
(후렴)

4.조국 지키여 한몸 바칠 결사대오 행군해간다
최후승리의 그날을 위해 불바다도 헤치리
(후렴)

우리 중대 맏누이

2.중대생활 화목하고 웃음 넘치니
맏누이가 바친 사랑 생각된다네
남모를 마음속 작은 그늘도
살틀히 만나서 가셔주었지
아 못 잊어 우리 중대정치지도원

3.병사시절 위훈속에 흘러갈수록
맏누이의 그 목소리 잊지 못하리
우리 당 받드는 효자되라고
뜨겁게 내 심장 울려주었지
아 못 잊어 우리 중대정치지도원

우리 중대 쌍피리

2.행군길에 앞장서던 맏형의 마음 담아
전사들을 도와주던 맏누이 사랑 담아
삘리리야 닐리리 쌍피리야
서로 돕는 그 마음 어려 피리소리 정다워라

3.우리 중대 쌍기둥의 정다운 피리소리
병사들도 마음 합쳐 노래춤 흥겨워라
삘리리야 닐리리 쌍피리야
수령님뜻 받드는 마음 노래되여 울려가라

우리 중대에 사진사 왔네

작사 최준경
작곡 엄하진
약간 빠르고 멋들어지게
1.해 빛 도밝은날에 중 대—를찾아 병 사 들기다리던
사 진—사 왔네 장 군 님보내주신 사 진—기메고
높 은령굽이굽이 넘어—왔구나 훈 련 을 잘—하 여
감 사 를받 은 동 무 들 찍어주려 나 래 쳐왔
네 야 ———모 여 라 — 우 리 사 진 사
목 마 에태 워 목 마 에태 워 환 영 해 주 세
이 번엔——— 다 같이 ——— 활 짝 웃 어

2.명사수꽃을 피운 영예도 안고
고향에 보낼 사진 찍게 됐구나
일당백용사로 자라난 모습
어떻게 찍어야 멋들어질가
가슴에 훈장 메달 번쩍이면서
호탕히 웃어야 멋이 있다네
야 그렇지 병사의 사진
름름한 모습 름름한 모습 영웅감일세

3.총잡은 우리 모습 사진에 남겨
값높은 병사시절 자랑하리라
한장은 부모에게 보내여주고
또 한장은 선생님께 보내줘야지
한장은 배낭속에 아껴뒀다가
이다음 처녀에게 선을 보이게
야 좋구나 우리 사진사
병사의 기쁨 병사의 기쁨 안겨준다네

4.중대에 사진사가 찾아온 날은
즐거운 명절처럼 흥성인다네
장군님사랑을 전하여주니
위훈을 떨치여갈 새힘이 솟네
이번엔 다같이 활짝 웃어라
사단에서 소문난 우리 중대 한모습
먼 후날에 추억하게 다시 한장 찍어주게나

우리 중대에 신입병사 왔네

년 1.이 제 ㅡ 부 터 자 랑 찬 생 활 ㅡ
이 우 리함 께 시 ㅡ 작 ㅡ 된 ㅡ 다 ㅡ 네
우 ㅡ리 의 중 대 는 ㅡ 자 랑 도 많 아 사 단에 서
소 ㅡ 문 난 붉 은 기 중 대 관 무 봉 전 투 에 서
이 름 난 우 리 중 대 장
은 혼 자 서 원 쑤 를 백 놈 이 나
쓸 어 눕 혔 지 ㅡ 훈 련 ㅡ
에 ㅡ 선 ㅡ 언 제 나 반 복 구 령
엄 해 도 생 활 ㅡ 에 ㅡ 선 ㅡ 친 근
한 맏 형 ㅡ 이 라 네 ㅡ (대사)

2.
Dm Gm B♭
군 대 라 반 겨 주 네 문 덕 태 생
B♭ Gm B♭ F B♭
전 사 동 무 군 민 — 일 치 혁 명 전
B♭ F Gm
통 더 욱 더 빛 내 이 며
D.S.
(대사)
3. Dm Gm E♭
때 려 — 잡 았 네 — 그
E♭ B♭ E♭ Gm
렇 다 멸 적 의 힘 을 — 다 져 —
F E♭ B♭ E♭
가 니 우 리 의 중 대 는
B♭ F B♭
용 맹 의 샘 터 — 라 네
B♭ F B♭ F
우 리 는
B♭ F B♭
친 형 — 제 중 대
F B♭ F B♭
는 한 가 정

대사: 1절후
《중사동지, 저에게도 그런 힘이 생길수 있습니까?》
《암, 있구말구.》

2.화목하고 단합된 중대는
  눈길만 마주쳐도 뜻이 통하네
  아무 일을 해나가도 손이 잘 맞아
  중대살림 꾸려가기 재미있네
  사격판을 겨누면 통구멍이 되고
  우리는 모두다 일당백전사
  농장벌에 나가면 싱글벙글벙글
  농장원들이 인민의 군대라 반겨주네
  문덕태생 전사동무 군민일치
  혁명전통 더욱더 빛내이며

대사:《농장의 바쁜 일손도 도와야지.》
《알았습니다.》

3.병사생활 즐겁고 유쾌하여
  중대는 억센 의지 키우는 학교
  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고
  우리들은 용사로 자라네
  얼마전에 입대한 어린 김동무는
  제일 작은 군복도 풍덩하더니
  오늘은 담벽같은 가슴에 붉은기휘장 달고
  기여든 간첩을 단매에 때려잡았네
  그렇다 멸적의 힘을 다져가니
  우리의 중대는 용맹의 샘터라네
  우리는 친형제 중대는 한가정

우리 집은 군인가정

작사 류동호
작곡 김문혁
궁지를 안고 (♩=70)
1.사랑하는나의조국 그품을지켜 온집안이총을잡고
초소에-섰네 아 ─우리의 장 군님
아-시는군인 가 정 우리집의자랑은 군복이라네
우리집은─ 군인가 정 아 ─우리의 장 군님
보위해갈군인 가 정 우리집의행복은
충효이라네 우리집은─ 군인가 정

2. 아버지의 전호가에 아들이 서고
어머니가 섰던 초소 딸이 지키네
아 우리의 장군님 내세워준 군인가정
우리 집의 가풍은 애국이라네
우리 집은 군인가정

3. 대를 이어 조국방선 지켜갈 맹세
굳게 잡은 총대처럼 변함이 없네
아 우리의 장군님 보위해갈 군인가정
우리 집의 행복은 충효이라네
우리 집은 군인가정

아 우리의 장군님 보위해갈 군인가정
우리 집의 행복은 충효이라네
우리 집은 군인가정

우리의 명사수중대 돌아온다

2.겨냥하면 단 한방도 빗쏘지 않는
자신만만 번쩍이는 눈빛을 보라
이 땅우에 감히 원쑤가 달려든다면
살아서는 되돌아갈 생각을 말어라
(후렴)

3.멸적의 일념으로 가슴 끓이며
잠결에도 방아쇠를 놓지 않는다
장군님의 안녕 지키여 총대를 잡은
백발백중명사수 우린 제일근위병
(후렴)

우리의 총대

작사 류동호
작곡 전홍국

빠르지 않게 의지적으로

2.이 땅의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이 실리여있는
이 총 이 총 한자루에 스민 무게 그 얼마더냐
혁명의 넋이 어린 총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러안으리 그러안으리 목숨같은 총대를

3.당이 준 당이 준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불길 불길만리라도 웃으면서 헤쳐가리
우리 장군님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에
놓지 못하리 놓지 못하리 혁명의 총대를

조국의 운명 실리여있는 사회주의 이 총대를
높이 들리라 높이 들리라 영원한 승리 위해

우리의 총대는 용서치 않으리

2.우리의 총대는 타협을 모르는 계급의 주먹
누구든 인민의 행복을 해치면 불벼락치리
주체의 붉은기 내리려는자
우리의 총대는 우리의 총대는 용서치 않으리

3.우리의 총대는 백승을 떨치는 섬멸의 번개
강대한 내 조국 미래를 담보해 서리발친다
장군님위업을 가로막는자
우리의 총대는 우리의 총대는 용서치 않으리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2. 평화를 진정 사랑하기에
우린 목숨도 바쳐가리라
장군님따라 천만이 뭉쳐
복수의 총창 들었다
(후렴)

울려가라 나의 노래

2. 량볼도 붉은 처녀이지만 비행기 잡는 대장부라오
충성에 타는 마음 담아 명중탄만 쏜다오
고사포신 높이 올려 조국하늘 지키여가니
동무들모두 녀장군이라 그이는 칭찬하셨네
(후렴)

3. 병실과 식당 어디를 가나 처녀의 솜씨 알뜰하여라
끝없이 푸른 나의 희망 초소에서 꽃피네
사랑하는 포와 함께 남해까지 달려가는 날
만세도 높이 축포를 올려 수령님 다시 맞으리
(후렴)

울려가라 행복넘친 병사의 노래

2.훈련모습도 보아주신 아버지장군님
우리의 노래 제일이라 박수도 보내시네
병사의 노래 행복의 노래
끝없이 울려가라 어버이사랑 담아

3.장군님품에 우리 안겨 끝없는 이 노래
위훈의 나래 펼쳐주고 승리의 신심 주네
병사의 노래 심장의 노래
더 높이 울려가라 충성의 메아리로

은빛날개

2.불구름을 뚫고 번개처럼 날아
원쑤의 아성을 부실 때
조국이여 우릴 우릴 지켜보라
그대의 은빛날개를
(후렴)

3.하늘가에 이 몸 흩어진다 해도
승리의 기발로 날리리
조국이여 우릴 우릴 안아다오
그대의 은빛날개를
(후렴)

이 기쁨 이 영예 끝없어라

작사 위원룡
작곡 동윤영
보통속도로 서정을 담아
1.수 — 령님 다녀가신 정 — 든나 — 의 초 — 소야
내 — 벌 써 네품에서 삼 — 년 — 자 — 랐 네 —
신 입병사 끄 — 마로 그 이 앞에 나 — 서던
그 — 날의 감 — 격이 안 — 겨온 — 다 —
아 —— 영웅되여 어머니만 — 나 뵈라하신
그 — 날 의 그 — 말씀 지 — 켜싸 — 웠 네 —

2.나서자란 고향은 서로서로 달라도
우리들은 친형제 수령님의 전사라네
언제나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은
우리를 영웅으로 키워주셨네
아 수령님의 전사로 자라난 이 영예
이 기쁨 이 영예 한없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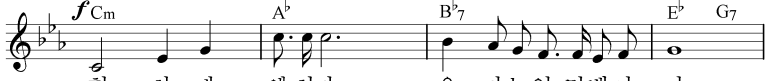
3.춤추는 파도우에 아침노을 붉게 타고
우리들의 심장마다 충성은 불타네
수령님의 손길따라 통일의 날 다가오고
공산주의 새아침이 밝아온다
아 어머니조국의 영원한 번영 위해
우리들은 굳세게 싸워가리라

이 하늘은 너희들의것

작사 기석표
작곡 리종오

2.하얀 연에 추억을 가득 실어보니
정든 고향하늘이 눈에 어려오네
꿈을 싣던 그 시절 하도 소중해
병사들의 가슴은 억세여지네
(후렴)

3.행복넘친 내 조국 푸른 하늘가에
불구름이 한점도 떠돌지 못하리
강철포신 언제나 숙이지 않으리
아이들아 더 높이 연을 띄워라
(후렴)

일 당 백

2.명중탄 날리여도 일당백으로
장수힘 키워가도 일당백으로
불패의 전투력을 백배로 다져
주체의 내 조국을 굳게 지킨다
(후렴)

3.수령님 안겨주신 일당백사상
장군님손길따라 더욱 빛낸다
천만의 대적들도 단매에 치고
언제나 백승을 떨쳐가리라
(후렴)

일당백의 노래

2.준엄한 년대 헤쳐오시며
장군님 빛내준 구호
무적의 선군보검이 되여
금별의 위훈을 낳네
(후렴)

3.백두의 위업 받드는 길에
영원히 추켜들 구호
장군님 결사옹위해가며
강군의 위력 빛내리
(후렴)

예 쁜 이

2.바위도 불타던 전호가에서
처녀는 병사들 누이되였네
뜨거운 그 정성 고지의 꽃처럼
처녀는 병사들 누이되였네
그 이름 예쁜이 간호원 예쁜이
처녀는 병사들 처녀는 병사들 누이되였네

3.어느날 달려든 적땅크 향해
처녀는 나갔네 수류탄 안고
간악한 원쑤의 무리를 맞받아
처녀는 나갔네 수류탄 안고
그 이름 예쁜이 간호원 예쁜이
처녀는 나갔네 처녀는 나갔네 수류탄 안고

4.처녀가 지켜선 조국땅우에
고운 새 우짖고 꽃은 만발해
영웅의 그 넋을 영원히 전하며
고운 새 우짖고 꽃은 만발해
그 이름 예쁜이 간호원 예쁜이
고운 새 우짖고 고운 새 우짖고 꽃은 만발해

위훈은 어디서 꽃피는가

2.어디서 꽃피나 병사의 위훈은
모교의 뜨락에 심고온 꽃나무
사랑의 교복을 입히여주시며
선생님 흘리던 그 눈물에서
아 맘속에 간직한 못 잊을 사랑과 은덕에서
꽃피는거라네 꽃피는거라네

3.어디서 꽃피나 병사의 위훈은
가슴에 새겨온 영웅의 수기에서
험준한 산발에 구슬땀 뿌리며
총창을 벼려온 그 심장에서
아 조국의 아들된 그 높은 자각과 영예에서
꽃피는거라네 꽃피는거라네